

韓國青少年的保健問題와 對策

Health Issues of Korean Youth and Their Counter-Measures

(WHO / WP / 89 / 2881)

洪 剛 義

金 聖 二

洪 文 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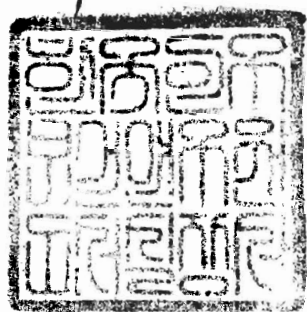
趙 南 勳

徐 文 姬

May 1989

韓國人口保健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머 리 말

우리나라 社會는 1962년부터 6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 推進을 통하여 社會·經濟·文化 등 諸分野에서 中進國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成長爲主의 發展과 物質的 풍요는 또 다른 여러 社會·文化的 問題를 야기시켰다. 西歐文明의 流入은 傳統的 價値와 慣習에 變化를 초래하였고 産業化에 따른 都市化와 情報化의 促進은 各種 社會病理 現象을 초래했던 것이다.

「靑少年 保健」問題도 이와같이 傳統社會에서 近代産業社會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등장한 社會問題의 하나인 것이다. 社會가 物質的으로 풍요로와지고 保健醫療 서비스나 營養狀態는 상당히 向上되어 靑少年들의 外形의 身體的 保健水準은 매우 양호하지만 이들의 精神健康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藥物濫用을 포함한 各種 非行 등이 날로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원래 靑少年期는 身體的 成熟과 精神的 未熟 사이에서 內的 갈등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 一流病을 낳게 하는 우리의 教育制度 등은 정신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켜 이들의 健康을 해치는 原因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最近의 靑少年 保健問題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世界가 共通的 關心을 보이는 社會問題로 대두되었고 世界保健機構(WHO)에서도 靑少年 保健問題를 1989年 5月「제네바」에서 열린 제42차 世界保健總會의 計議主題로 선정하였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本 報告書는 世界保健機構(WHO)의 支援을 받아 지난 1989 4.24 ~ 25 양일간 當院에서 개최된 “靑少年 保健問題와 對策”에 관한 세미나 主題發表 및 計議 結果를 整理한 것이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우리나라 靑少年 健康 增進를 위한 政策樹立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동 세미나를 지원해 준 WHO와 參席者 여러 분께 심심한 感謝를 표한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수록된 各種意見은 研究者의 私見일뿐이며 政府나 當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89年 5月

韓 國 人 口 保 健 研 究 院
院 長 池 達 顯

目 次

I. 青少年的 健康實態와 當面課題	5
1. 健康實態	
2. 研究目的	
II. 青少年的 精神健康問題와 對策	13
1. 序論	
2. 青少年 精神健康의 概念	
3. 青少年期의 發達課題	
4. 精神健康을 해치는 要素	
5. 青少年 適應의 類型과 精神健康問題	
6. 精神障礙의 實態	
7. 精神障礙의 種類	
8. 青少年 精神健康을 위한 對策	
9. 結論	
III. 青少年 藥物濫用 및 非行과 對策	31
1. 緒論	
2. 青少年 藥物濫用의 實態	
3. 計議 및 對策	
IV. 青少年 性問題와 對策	46
1. 青少年的 特性과 現況	
2. 青少年的 性問題 實態	
3. 性問題의 對策	
V. 要約 및 政策的 提言	67
英文要約 (Abstract in English)	77

I. 靑少年의 健康實態와 當面課題*

1. 健康實態

1960年代 初부터 우리나라의 社會는 諸般分野에 걸쳐 급격한 變化를 이룩하였다. 즉 經濟的으로는 1962년부터 6次에 걸친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産業構造의 혁신을 통한 新興工業國으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社會的으로는 都市化와 核家族化의 促進, 犯罪의 增加등 社會病理現象이 가속화되었고, 文化的으론 전통적인 價値觀과 慣習의 變化, 그리고 도덕의 문란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社會는 産業社會로 변화됨에 따라 物質의 풍요에 의한 身體的 健康水準은 크게 向上되었지만 반대로 內在의인 精神健康面에서는 많은 社會的 問題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靑少年期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이룩되는 시기이고 心理的 變化가 많은 정서적인 격동기일 뿐 아니라 성숙한 社會人으로서 인격도야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들에 대한 體系的이고 綜合的인 對策이 未洽해 왔고 관련 研究도 매우 미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靑少年期の 身體的 成長은 우리나라의 經濟社會의 發展과 같은 速度로 증가되어 왔다. 國家經濟가 풍요로워지고 GNP가 높아짐에 따라서 體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人間의 體位形成에 영향을 주는 要因은 크게 遺傳的 要因과 環境要因으로 區別할 수 있는데 營養및 疾病과 社會經濟的 情緒的 要因이 後者の 環境要因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먼저 영양상태와 成長發達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매우 많은데 代表的인 것이 戰時에 독일에서 행한

趙南勳,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首席研究員

徐文姬, 韓國人口保健研究院, 責任研究員

연구이다. 1911~1953年間 독일의 7~18세 학생의 신장과 체중을 조사한 결과 1920~1940년에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2차 대전 직후에는 食糧 사정의 악화로 감소되었고 1947年 이후 상태가 호전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¹⁾

또한 社會經濟的 條件이 좋은 가정의 자녀들의 體位가 우세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專門職 계층의 子女가 신장과 體重 면에서 우세하며²⁾ 특히 신장은 青年 期에 3~5cm정도가 더 크다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영양 이외에 수면, 운동 등 규칙적 습관의 차이에서 연유된다고 하나 이같은 家庭의 經濟的 條件보다는 社會心理的 조건이 더 크게 作用한다고 한다.

어떠한 過程을 통하든지 國家經濟의 풍요는 靑少年의 體位 向上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바, 表1에서 年度別 變化推移를 보면 만15歲 남녀의 體重과 身長을 年度別로 알아본 것인데 男子, 15歲의 身長은 1965년에 151.5cm이던 것이 1986년에 164.2cm로 크게 증가되었고 女子의 경우도 1965年 149.3cm에서 1986년에는 155.4cm로 증가되었다. 體重의 경우도 男子는 1965年 44.6Kg에서

表 1. 滿15歲 靑少年의 身長 및 體重의 年度別 變化推移

區 分	1965	1970	1974	1980	1986
身長	男	151.5	160.8	161.6	161.8
	女	149.3	153.4	155.2	154.6
體重	男	44.6	41.1	50.7	50.3
	女	43.7	48.7	48.8	48.7
調査機關	保社部	文教部	文教部	韓國科技院	韓國標準 工業振興廳

資料: 윤남식, 韓國人の 體位, 梨花女大 出版部, 1987.

1) J.M Tanner, Interaction of Hereditary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Controlling Growth, N.Y, John Wiley and Sons, Inc, 1972, pp.383~411

尹南植, 한국인의 체위, 이화여대 출판부, 1987, p.26 재인용

2) J.M Tanner, *op. cit.*

1986년에 53.2Kg으로 증가되었으며 女子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때 초기 經濟發展 시기에 큰 폭의 增加를 보였으며 1980年代에 들어와서 다시 증가된 경향을 나타냈다.

이를 다시 年齡別로 日本의 경우와 比較해 보면 表2와 같다. 日本은 우리나라와 同一한 文化圈에 있으면서 經濟的으로는 구미 선진 제국과 같은 發展水準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比較에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年齡別로 만10세~19세를 제시하였고 比較 資料는 17세까지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靑少年이 男女 모두 체중과 신장 면에서 日本 靑少年에게 약간 썩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아서 17세 靑少年을 기준으로 볼때 體重은 男子가 韓國과 日本이 각각 57.1Kg, 61.5Kg으로 3.6Kg의 차이가 나며 女子는 각각 50.8Kg, 52.8Kg으로 2.0Kg의 차이를 나타냈다. 身長에서도 17세 靑少年이 男子가 韓國 167cm, 日本 170.2cm로 3.2cm 차이를 보였고 女子도 각각 155.8cm, 157.6cm로 1.8cm의 차이를 나타냈다.

日本에 비해서 우리나라 靑少年이 男女 모두 身長이나 體重 면에서 각각 2~3cm, 2~4Kg씩 뒤지기는 하지만 과거보다 매우 向上된 水準이며 아마도 GNP가 더욱 더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向上될 전망이다.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生活環境의 變化, 食生活 改善, 그리고 厚生과 保健의

表 2. 年齡別 體重 및 身長의 韓·日 比較, 1986

區 分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體 重	韓國	男	30.7	33.4	38.2	42.4	48.4	53.2	56.2	57.1	59.1	59.7
		女	30.6	34.2	40.1	44.0	47.1	49.3	50.0	50.8	51.8	51.8
	日本	男	32.8	36.5	41.8	47.4	53.0	57.9	60.0	61.5		
		女	33.1	37.8	42.9	46.8	49.8	51.9	52.7	52.8		
身 長	韓國	男	135.8	140.4	147.0	153.4	160.1	164.2	166.2	167.0	167.9	168.3
		女	136.7	142.7	149.4	152.7	154.8	155.4	155.9	155.8	156.2	156.4
	日本	男	137.7	143.2	150.0	157.7	163.8	167.5	169.2	170.2		
		女	138.8	145.5	150.9	154.4	156.3	157.0	157.4	157.6		

資料:윤남식, Op. cit.

점진적 증진으로 靑少年의 체격은 더욱 크게 향상될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靑少年期の 身體의 成長課程에서 호르몬의 분비와 함께 나타나는 變化로 女子의 경우 初經의 시작을 들 수 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에스트로젠」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제2차 性的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年齡은 10~16½歲인데 世界的으로 볼때 대개 13歲 정도가 평균이라고 한다.³⁾ 우리나라의 女子 初經에 대한 調查 結果를 보면 1983年 現在 평균 12.3歲로 집계되었다.⁴⁾ 그런데 이 12.3歲는 1960年の 14.6歲와 비교할 때 2.3歲 가량이 빨라졌는데 이 역시 生活 環境의 變化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身體的 條件의 向上이나 조기 성숙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國民 1人當 1日 칼로리 섭취량이다. 우리나라 國民1人當 1日 섭취 칼로리는 國家 經濟 發展과 같은 속도로 증가되어 온 바 1965年에 2189Kcal이던 것이 1970年에 2370Kcal로 증가하였고 1975年에 2390Kcal, 1980年에 2485Kcal가 되었으며 1985年에는 2687Kcal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칼로리 섭취량은 美國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日本과 비슷한 수준이며 여러 아시아 地域 國家들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서 영양을 비롯한 物理的인 次元에서의 靑少年 保健問題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表3 참조)

뿐만 아니라 靑少年期에 필요한 學校教育의 기회도 增大되어 있어서 中學및 高校 進學率이 상당 수준 증가하였다. 1986年 現在 국졸자의 中學 入學率이 98.5퍼센트이고 中學校 卒業者의 高校 進學率이 91.2퍼센트에 이르고 있는데 1990年代에는 中學校 進學率은 100%에 달할 것이며 中卒者의 高校 進學率로 91.8퍼센트 정도로 기대된다.(表4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靑少年 保健問題는 物質的 측면에서는 거론하기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精神的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國家經濟가 발전하고 國民所得이 높아져서 物質的으로 풍요로워지고 영양

3) WHO, Young People's Health-A challenge for society, 1986 p.22

4) 金美和, 女學生의 初經에 관한 조사연구, 韓國保健教育學會誌, 제1권 1호, 1983. 12, p.25

表 3. 1人 1日當 칼로리 攝取量 比較

單位:Kcal

國 家	年 度	칼로리
韓 國	1965	2,189
	1970	2,370
	1975	2,390
	1980	2,485
	1981	2,531
	1985	2,687
日 本	1981	2,586
臺 灣	1979~81	2,692
美 國	"	3,641
인 도	"	2,056
파키스탄	"	2,180
필 리 핀	"	2,405

資料:韓國 農村經濟研究院, 食品需給標, 1985.

表 4. 年度別 中學校 및 高等學校 進學率

單位:%

年度	中學校	高等學校
1972	69.2	67.2
1975	75.5	74.7
1980	94.1	84.5
1982	96.2	86.9
1986	98.5	91.2
1991	100.0	91.8
2001	100.0	95.8

資料:文教統計 年鑑, 1987.

및 보건환경의 改善으로 體位가 向上되었을 뿐만 아니라 教育의 기회도 확대 되었다고 해서 靑少年의 保健問題가 모두 해결되었다고는 할수 없고 오히려 精神健康과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靑少年期 자체가 特性上 신체적으로는 成熟된데 비해서 精神的으로는 미숙하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간의 不均衡 상태를 이루고 있어 心理的으로 不安定하게 마련인데 여기에 社會的 제요인들이 心理的 정신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한다. 특히 量的으로 擴大된 教育機會라지만 質的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入試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고 一流學校에 入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여기에다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外國의 풍조를 비판없이 모방하는 傾向이 없지 않다.

表 5는 경찰에서 단속한 미성년자 풍기사범을 1979년부터 1986년까지 8年間 종류별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 단속건수는 1979년 이래 계속 증가해 오다가 1985년 1986년에 들어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그러나 아직도 年 20만명의 14~20세 청소년이 풍기사범으로 경찰에 단속을 받는다고 하겠다. 類型別로

表 5. 年度別 不良行爲 少年 風氣 團連件數

單位: 名

年度	計	團					連				
		여행자 출입	음주	흡연	싸움	불량 교우	남여 혼숙	흥기 소지	불량집 단가입	환각물 질소유	기타
1979	207,767	6,642	42,698	38,175	14,761	19,602	3,133	1,424	1,299	152	79,881
1980	258,067	4,876	42,369	39,949	26,309	21,855	1,146	3,102	1,006	500	116,955
1981	217,373	3,529	38,923	43,811	26,371	21,685	795	2,055	425	357	79,422
1982	255,345	4,702	49,906	57,977	31,639	24,388	1,366	2,155	545	348	82,319
1983	282,604	4,678	53,797	69,137	33,791	29,761	1,117	1,842	530	328	87,623
1984	297,828	1,368	48,785	74,639	31,934	26,519	1,253	1,517	428	317	111,068
1985	254,477	575	44,329	72,046	24,852	18,051	1,118	1,673	-	349	91,484
1986	197,757	1,102	33,389	57,758	21,255	7,346	750	1,416	592	532	73,617

資料:靑少年對策委員會,靑少年白書,1984~1987.

는 음주와 흡연이 가장 많으나 차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환각물질소유로 단속된 件數이다. 이는 오히려 1986년에 와서 1985年以前보다 훨씬 늘어나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듯한다. 이 표에 제시된 풍기사범 件數는 경찰에서 적발한 수치이다. 따라서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이와같은 件數들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수 없다.

한편 表6에서는 年度別, 類型別 少年犯罪의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1986年 현재 不良行爲 단속이 약 20萬件인데 비해서 범죄는 약10萬件으로 전체 범죄

表 6. 少年犯罪의 類型別 動向

單位: 名

區分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計	70,240	87,962	88,936	106,301	103,088	104,578	102,225
對全體 犯罪比率	—	—	11.5%	12.3%	10.7%	10.1%	10.5%
殺人	79	88	86	93	103	79	89
強盜	875	1,822	1,826	1,875	1,838	2,010	2,287
強姦	2,093	2,278	3,152	3,642	3,360	3,342	3,268
放火	45	28	59	53	57	51	48
暴行	38,704	40,446	36,590	46,829	43,497	44,898	44,556
竊盜	18,955	26,929	30,183	36,183	34,347	31,834	30,568
傷害	1,303	1,289	1,203	1,611	1,444	1,483	1,454
恐喝	196	290	271	301	297	315	311
脅迫	25	33	47	30	33	17	20
橫領	563	543	545	611	624	731	685
贓物	636	936	1,012	1,192	1,042	922	825
詐欺	689	667	788	949	1,154	1,773	1,848
其他	14,880	12,426	13,015	12,775	15,179	17,123	16,266

資料: 靑少年對策委員會, Op. cit.

註: 大檢察廳 統計로서 警察統計 以外에 特別同法警察官廳의 送致事件 包含.

의 약 10퍼센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件數는 차츰 증가하다가 1982년부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暴行과 절도가 가장 많으며 강간도 1980年代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해 1985年 現在 3268件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강도건수도 계속 증가하였고 특히 사기건수도 1984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6에서는 유형별로 量的 증가 및 감소를 나타냈으나 그 內容의 強度는 알수 없다. 그러나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은 장식하는 靑少年의 集團性暴行과 환각제 복용은 이제 누구나가 社會問題로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量的 變化보다는 범죄내용이 더욱 더 흉폭, 과격해져 간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급격한 西歐의 인 性開放 풍조의 확산, 비디오 文化의 보편화 등도 또한 사회적 배경으로서 靑少年의 性關聯 건강문제의 原因으로 지적되고 있다.

2. 研究 目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靑少年은 物質的으로는 건강하고 신장이나 체중에서도 상당히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시할바가 되지 않으나 그 대신 入試制度和 같은 社會制度의 變化에 따른 精神健康과 藥物濫用 및 性行爲 등 제반非行이 精神的 次元의 靑少年問題로 社會的인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靑少年의 身體的 保健問題보다는 現在 우리나라 社會가 當面하고 있는 靑少年의 精神健康, 藥物濫用과 非行, 그리고 性行爲와 관련된 問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靑少年問題에 대처하기 위한 全國規模의 調查研究가 미진한 狀態에서 本 研究는 그간에 간헐적으로 이룩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靑少年의 保健問題의 實狀과 原因, 그리고 이에대한 代案을 규명하기 위해서 上記 3個主題에 관한 發表와 計議中心의 「세미나」方式을 채택하게 되었다. 同 세미나는 世界保健機構(WHO)의 財政支援下에 지난 1989年 4月24日~25日 期間中 韓國人口保健研究院 主管으로 實施되었다(別添 세미나 日程表 參照).

Ⅱ. 靑少年의 精神健康問題와 對策*

1. 序 論

韓國의 靑少年을 12세부터 19세까지로 친다면 靑少年의 수는 700여만이고 12세부터 24세로 보면 1,200만에 달한다.(靑少年백서 1987)

최근 靑少年의 문제는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이제는 靑少年의 문제가 소위 선진국의 특이한 문제라고 돌려버리기에는 너무도 절실히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靑少年의 문제는 비행범죄등 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마치 전체 靑少年문제의 전부인것 처럼 인식되어 있으나 실은 이러한 문제는 일부에 제한되어 있고 보다 더 많은 靑少年들은 사회적 법적인 문제를 결코 일으키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많은 精神的 渴慕와 苦痛속에 지내고 이로 인해 부모들도 큰 부담을 갖게 된다. 수많은 靑少年들이 불안과 우울에 떨고 있는 심한 정신적 갈등과 감정의 격동속에서 靑少年 본래의 발달과제를 성취하지 못하고 고통과 좌절속에 지내며 일부에서는 현실 도피적, 정신병적 상태에 빠지거나 自殺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靑少年의 문제를 外的이고 行動的인 問題에 국한시키지 않고 內的이고 心理的인 면까지 포함하여 정신건강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된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靑少年 精神健康의 概念

靑少年기는 변화와 격동의 시기다. 인간의 어느 발달단계에서 보다 가장 변화가 많고 그만큼 靑少年들이 성취해야 할일(발달과제)이 많으며 이에 따

* 洪剛義, 서울大 醫科大學 小兒精神科 教授

르는 心理的 危險과 精神의 問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이란 어떤 청소년을 두고 하는 말인가? 精神健康이란 한 마디로 정의하기 힘들다. 정신건강을 단순히 “정신병”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해서는 안될 것이다. 좀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1)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思考力과 (2) 자기생존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行動力, 그리고 (3) 희노애락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情緒的 安定을 지니고 이 세가지 면이 적당한 調和를 이루어 그가 처한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고 그 결과 자기의 생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幸福과 安寧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정신건강을 이같이 정의한다면 청소년은 일생에서 가장 정신건강의 문제와 위험성이 높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청소년기 이전의 發達 段階에서의 發達課題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첫째, 유아기에 어머니와의 애착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인간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감, 그리고 생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 둘째, 걸음마기에 獨立性과 自律性, 그리고 자기 통제능력이 수립되어 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意志力이 생겼어야 하며 세째, 학령전기에는 부모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성(性)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다는 目的意識이 생겨야 한다. 네째, 學齡期에는 학습이나 기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추구에 대한 흥미와 자기도 생산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다는 自信感과 친구와 사귄 수 있고 어떤 단체에 속해 있다는 社會性과 團體性이 생겨 있어야 한다. 이러한 네가지 능력이 다 이루어진 정상적인 아동은 청소년기의 힘든 과제를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청소년 건강의 前提 條件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청소년의 發達課題의 觀點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즉 건강한 청소년은 다음의 발달과제를 成功的으로 치루어 나가는 靑少年이라 정의할 수 있다.

3. 靑少年期の 發達課題

가. 身體 變化에의 適應:충동의 통제와 성 에너지의 승화

초기 청소년들은 우선 급격한 身體的 成長과 二次成長의 출현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청소년의 신체상의 변화를 수반하고 더 이상 아동일 수 없고 成人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표로서 하나의 스트레스와 압력이 된다. 반갑고 만족스럽지만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불안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어딘가 이상이 있지 않나 걱정되기도 하며 남과 열심히 비교한다. 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옷과 치장에 신경을 쓴다. 다른 청소년이나 자기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성인들의 행동이나 의상을 흉내내려 한다. 이러한 心理的 反應은 思春期를 전후하여 얼마나 사춘기 변화에 대해 교육이 되었나와 아동기 시절 자기자신의 신체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자신감이 없고 依存的이며 성에 대한 편견이나 불안이 있는 청소년들은 특히 이러한 변화에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성적 충동의 급격한 증가는 남자의 경우 중기나 후기 청소년기에 정점을 이루어 자위행위나 실제적 성행위로 해소해 나가는데, 자위행위는 남자 청소년의 80~90%에서 행해진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위행위 자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나 자위행위 자체가 해가 된다는 증명은 없다. 오히려 이에 수반되는 罪惡感이나 不安이 더 해롭다. 또 이 시기에 성에 대한 잡지, 책, 소설을 읽음으로써 성적충동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며, 따라서 친구와의 농담과 유머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 자위행위가 30~40% 정도로 행해지지만 실제적인 성적 행위를 통한 해소책 보다는 낭만적 환상이나, 가수, 선생, 영화배우 등과의 낭만적 사랑에 빠진다. 어떻게 보면 사랑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남녀 모두 미팅이나 다른 團體 活動을 통해 男女 關係에 대한 호기심이 충족되고, 성적충동이 간접적으로 발산되면서 교우관계, 남녀관계는 다음에 논할 부모의 대체물로서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 공격적 충동의 증가로서 특히 남자의 경우는 문세인데 이때 과격한 운동이나 경쟁적 게임, 기타 신체적 활동, 취미 등으로 승화시킨다. 이러한 성적, 공격적 충동의 문제는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대로 행동해 버리거나 반대로 이러한 충동을 무시, 또는 완전히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

나. 父母로부터의 心理的 解放과 獨立

많은 청소년들이 초반기나 중반 청소년시기에 자신은 다 컸다고 생각하며

成人취급 받기를 원하는 반면, 부모는 그대로 아동으로 취급하려 한다. “理由 없는 反抗”이 시작되고 부모와 청소년간에 소소한 일로 다투며 신경전을 벌인다. 이제까지 비교적 순종적이던 자녀가 도전적이며 부정적이고 반대로 행동을 함으로써 부모를 아연실색케 한다. 이러한 反抗의인 行動은 이제까지 소아의 의존적이었던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情緒的으로 獨立하려는 노력의 발로이다. 자기는 이제 신체적으로 성장하였으니 어른으로 취급해주고 좀더 많은 自由와 權利를 달라고 주장한다.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부모를 증오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한다. 이것은 자기의 의존성을 부정하고 부모의 간섭에 過敏反應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립, 자율의 추구하고 부모로부터의 해방되려는 노력은 불안을 일으키는데 자연 부모의 대체물이 흔히 등장한다. 이는 선생일 수 있고 유명한 가수, 스포츠 영웅, 혹은 영화배우일 수 있다. 또 새로운 관계로서 친구를 더 사귀게 되고 절친하고 이상적인 친구를 추가하게 되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 동성의 친구문제가 심각해 진다. 친구들과 人氣競爭을 하게 되고, 강렬하고 심각한 交友關係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친구 역시 아동기의 자기 부모처럼 자기만을 좋아하고 보살피 주기를 바라는 요소가 섞여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다시 한번 과거 아동기에 가졌던 갈등이나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이 되살아나 감정적으로 격하게 되기도 하며, 부모의 도움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감정의 격동을 수반함으로써 이 시기에 새로운 宗教에 관심을 두거나 문학, 예술, 미술, 음악 등의 藝術에 심취하기도 한다. 감정의 변화가 심하여 우울하기도 하나 쉽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한편으로 과대하고 이상적이다가 다른 한편, 지독히 自己 中心的이고 現實的이다. 이러한 감정의 격동이나 방향은 청소년들이 후반기에 이르러 自我正體性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점차 가라앉고 새로운 평정을 찾는다.

다. 自我正體性(Ego Identity)의 確立과 價值觀의 定立

후기청소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나란 무엇이냐’, ‘내가 설 땅은 어디냐’, ‘장래 나는 사회적으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의 추상적이고 동

시에 구체적으로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감안하여 장래 계획을 세우며, 생의 의미와 世界觀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즉, 자기자신의 내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의 正體는 무엇이나’, ‘나의 알맹이는 무엇이고 나를 나로서 존재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자기가 처한 사회에 자신을 펼칠 준비로서 사회에서의 자기의 役割에 대해 생각하고 職業의 種類도 결정한다.

Erikson(1956)은 이를 自我正體性이라 하였는데, 이 正體性이란 어렸을때부터의 여러가지 단편적인 內的 經驗과 性格, 그리고 동일시했던 사회적 역할들이 정리되고 하나의 통합된 자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正體性에는 이제까지의 얻어진 수 많은 자아의식과 가치관, 대인관계 등과 그가 처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확대된 이상적 자아가, 추상과 미래 중심적 사고가 가능한 인지능력의 도움으로 고차원에서 통합되어 새로운 자아가 탄생함을 의미한다.

4. 精神健康을 해치는 要素

가. 人間教育의 不在

한국사회에 있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가장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것은 인간의 성장과정에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시기를 入試準備의 시기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교육목표를 全人的인 教育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말 뿐이고 실제로 모든 학교의 교육이나 지도방향은 좋은 대학, 일류대학에의 입학을 지상 目標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시절 체육과 운동은 신체적인 발달을 촉진시키고 이에 따르는 성적인 충동이나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중요한 활동이고 빼놓을 수 없는 교과과정이지만 부모는 물론 학교당국은 이를 경시하고 놀기만 한다고 야단만 치는 풍토다. 성적이 상위에 속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수업, 중·하위권에 들어가면 더이상 교육의 대상이 되지않는 듯한 선생님들의 태도, 시험과 시험의 연속, 이러한 모든 것들은 중·고등학교 교육을 입시 위주의 준비교육으로 전락시켰다. 家庭에서도 학생이 공부만 잘하

면 품행이 나빠도, 예의가 없어도 모든것이 용서된다. 물론 이러한 學校의 態度는 부모의 강요와 사회적인 여건에 부응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의 인간교육의 부재는 교육전체가 지식의 습득이나 학업적 발전을 上品價値로만 인식하게 하고있다(박성수 1988). 교육이 넓게 보아 인간적인 성숙을 위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에서 성공하고 사람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일류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최상이라는 가치관을 통념화 시키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원만한 人間關係, 自律性과 獨立心, 올바른 價値觀, 뚜렷한 自我像과 主體性 確立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人間教育의 不在는 정신건강과 가장 중요한 정서적 안정과 발달과제의 성취를 불가능하게 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일으키고 불안, 초조, 우울, 심지어는 자살 등 다양한 정신적 증상을 초래하고 있다.

나. 價値觀의 혼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사회에서 現代社會로 기적적인 도약을 해 왔다. 西洋의 價値觀과 哲學의 도입은 한국인의 가치관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현대 많은 한국인들은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정통적인 것인지 서양적인 것인지 구별을 하지 못할 정도다. 關係中心의이고 家族中心의이던 가치관이 個人中心의이고 成就 指向的으로, 相互 協調的이고 相互 依存的이었던 정통사회에서 심히 경쟁적이고 황금만능주의적인 사회로의 변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치관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기적적인 경제적 성장과 생활환경의 호전은 우리국민이 더이상 생존에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하고 있고 이제는 좀더 생의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노력하려는 시기에 놓여져 있다. 그러나 기성 세대는 아직도 生存 위주의 사고 방식에 매여 있어서 좀더 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미 위주의 청소년과 심한 세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靑少年들은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로부터의 獨立을 宣稱하고 독립을 이루려고 하나 진정한 독립은 反依存的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의존의 부정이나 반대를 독립으로서 착각하고 있다. 부모와 구 세대의 전제적인 사고에 대한 반항으로써 반전제적, 반

독재적인 운동에 가담하므로써 民主主義를 樹立하려고 노력하나 반 전체적이고 또 반 독재적인 것이 무조건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청소년들은 따라서 현실과 이상, 생존과 의미, 개인과 공동체, 협조와 경쟁사이에 큰 갈등을 느끼고, 한편으로 성취 지향적, 황금만능주의적인 극히 이기적인 목표를 가지면서도 이상적 자아상, 진정한 의미의 자아를 찾으려는 강렬한 욕구는 한국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것이 자아 정체성의 혼돈이나 지연,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사회, 정치적으로도 외형적으로 民主化를 내세우지만 권위주의와 공권력을 이용한 비리 등은 계속되고 있고 실제 직장생활에서 상관이나 상사에 대한 절대복종은 계속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겉으로 말하는 목표는 이상적이고 합리적, 민주적인 반면에 실제적인 행동이나 사회구조는 비합리적이고 現實爲主, 權威爲主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이중 결속에 집어넣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심한 渴藤과 懷疑에 빠지게 된다.

다. 家族制度의 變化

근대 한국사회의 변화중에 정신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가족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擴大家族에서 核家族으로의 변천과 자녀수의 격감은 정신건강적인 측면에 있어서 몇가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첫째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매우 가깝고 강렬해 졌다는 점이다. 대가족 제도하에서 한 아동이 여러 어른과의 관계를 가졌던 것이 핵가족 하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 매이게 됨으로써 그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강렬해졌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의 장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고조되었고 또 부모의 기대에 자녀들의 심리적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韓國의인 現實에서 부모는 학업성취와 일류대학으로의 진학이 자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함으로써 이는 청소년들에게 건딜수 없는 精神的 壓力으로 가해진다. 긴밀하고 강렬한 만큼 그 자녀들은 부모의 정신적인 갈등과 문제성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부모 자신의 입장으로 보아도 대가족 제도하에서 복잡했던 여러사람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식과 부부간의 관계에만 관심을 쏟게되어 청소년을 가진 중년기의 부모들은 그들 자신의 정신적 갈등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 자녀들의 獨立的인 欲求와 自率性의 成就를 인정하기가 힘들고 지속적인 통제와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며 자신의 정서적인 욕구나 정신적인 갈등이 자녀에게 투사되는 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현 세대의 부모들은 오늘날의 청소년을 二重 結束(double bind) 속에 몰아넣고 있다. 기성세대는 그들 자녀들이 독립적이고 진취적이고 개성이 뚜렷한 인간이 되기를 목표로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養育, 教育的 行動은 여전히 그들이 의존적이고 복종적이고 사회에 잘 순응하는 말 잘듣는 좋은 청소년이기를 바란다(홍강의 1984). 따라서 청소년은 심한 갈등과 격동을 경험하며 이러한 청소년 갈등의 연속은 대학생 시기에 권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과 반항, 격렬한 데모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적 요소가 된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하고 의식적으로는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기 욕심과 자기 성취의 수단으로써 자녀들이 成功하기를 원한다. 轉換期의 한국가정에서 또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은 父親不在, 적어도 부친권위 부재라 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직장과 사회생활에 매여 자신의 직업적 社會的 成功에만 신경을 쓰고 자녀교육에는 無關心내지 어머니에게 맡김으로써 청소년들은 진정한 가정의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고 否定的인 權威主義에 반발만을 느낀다.

라. 매스컴의 問題性 및 共同體 責任意識의 缺如

라디오나 TV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강렬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가 되었다. 부모나 선생님의 가르침보다 더 강력한 教育效果를 나타내고 거절할 수 없는 행동의 모델로 등장하였다. 최근에 와서 청소년에 관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성인 위주, 오락위주의 상업적 TV프로그램과 무책임한 商業主義, 적나라한 음란비디오의 범람, 연소자 관람 불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오히려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흥행업소의 범람과

통제의 결여 등은 자제력이 부족하고 호기심과 탐험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유혹으로 대두되며 이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이 쉽게 그리고 조기에 성인 세계의 비리와 쾌락 추구의 행각을 模倣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사회병폐나 사회악에 대해 어느누구도 共同體的 責任意識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는 학교나 정부에, 정부나 전문가는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상업인이나 기업가는 利益만을 추구하지 그것이 청소년 發達에 해가 되든 利益이 되든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마. 專門 人力의 缺乏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수립과 그 문제의 예방을 위하여 부모나 교사들의 役割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나 학교나 가정에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야기 되었을때 초기부터 이를 도와주고 다뤄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專門 要員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학교 교사를 상담교사로서 교육을 하고 있으나 좀더 전문적인 靑少年 相談員, 心理學者, 靑少年 精神醫學者, 社會事業家 등은 소위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부족은 청소년 선도와 문제의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부재를 의미하고 따라서 더 많고 심각한 청소년문제가 增加하는 要因이 된다.

5. 靑少年 適應의 類型과 精神健康 問題

이상의 청소년 발달과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에 따라 그 어려운 정도와 문제 발생의 빈도에 차이가 있겠는데 適應의 類型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본다.

가. 정상적이고 능력있는 청소년군

대부분의 청소년은 이 그룹에 속하는데 충분한 적응능력을 갖고 사춘기 변화에 제대로 잘 적응하며 과거의 경험과의 강한 유대성을 보이며, 性格統合이 원만하고 가치관이나 미래관, 그리고 自我正體性을 쉽게 찾는 청소년들을

말한다.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질 사회의 역할과 성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사회의 價値觀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에 자신을 잘 맞추어 나간다.

나. 민감하고 취약성 높은 청소년군

이들은 청소년기에 특별히 민감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그룹으로 공상이 많고, 기분의 변화가 잦고,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보인다. 反抗이 잦고 理想主義的이며 批判的이어서 어른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청소년이라 생각했던 유형이다. 이들도 상담소를 찾아올 수 있으며 정신과에도 올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서 장애군과는 다르다.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기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잘 통합된 성숙한 성인으로 진전된다.

다. 장애 청소년군

이들 청소년군은 소수이지만 심각한 문제를 갖는 그룹으로 反社會的 行動(비행), 충동억제 능력의 결여, 불안, 우울 등의 심한 격동과 위기를 보인다. 더 심한 경우는 정신착란, 정신분열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들은 정신과나 기타 치료소를 찾아야 할 청소년들로서 청소년 시기 뿐 아니고 과거 유년기나 장래에 올 성년기 즉, 일생을 통해 適應問題를 가지는 부류의 청소년들이다.

6. 精神障礙의 實態

한국에서 현재까지 일반 청소년에 포괄적인 정신과적 연구는 별로 없고 이제까지 중앙의대 민병근, 이길홍을 비롯한 일반 및 비행 청소년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와(민병근등 1981, 1986) 김광일(1983)등이 주도한 일반 청소년에 관한 철저한 정신의학적 연구가 두드러졌고 그외에는 각 대학교의 청소년 환자에 대한 분석, 서울대학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임상환자군에 관한 연구(홍강의 등 1982, 1984, 1986)가 있을 뿐이다. 이중에 본 연제와 가장 관련이 많은 研究結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광일등은(1983) 190명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를 연구한 결과 精神的으로 건강하다고 판단된 경우가 88명으로 46.31%,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問題性을 지닌 학생이 43명으로 21.63%, 정신장애로 보이는 학생이 59명으로 31.05%로 보고되었다. 59명에 달하는 非正常群 즉 정신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구분해 보면 신경증 2명, 정신병 초기단계 8명, 정신분열증 2명, 적응장애 12명, 성격장애 31명, 우울증 4명으로 나타나 있다. 비율로 보면, 신경증 1.05%, 정신분열증 1.05%, 잠재성 정신병 4.21%, 적응장애 6.31%, 인격장애 16.31%, 우울장애 2.1%로 나타나 있다. 性格障礙중에 3.16%는 反社會的 非行이었고, 나머지 14.16%는 非 社會的 人格障礙가 포함되었다. 이 중에 놀라운 것은 잠재성 정신병, 정신분열 및 심한 우울증을 합쳐서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7.36%에 달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것으로 89%에 해당하는 학생이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適應障礙 곤란을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將來 문제와 관련된 공부 문제가 가장 많았고 심각한 것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남학생의 흡연율은 32.32%, 여학생은 4.39%, 남학생의 음주율이 43.43%, 女學生의 飲酒率은 17.49%였고 약물 남용은 4.21%, 도박의 경험은 5.7%에 달해 있다. 이러한 통계는 민병근과 이길홍의 연구 결과와도 비교적 일치하는 소견이었다. 적응곤란 학생중에 가장 비율이 큰 것은 功夫 문제로서 87.89%, 부모 문제가 40.52%, 형제 자매간의 갈등이 46.84%, 경제문제가 52.57%, 신체적 불편이 43.68%였다. 민병근, 이길홍등의 대단위 청소년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서 중요한 점을 살펴보면, 흡연율 38.8%, 대마초 흡연 3.0%, 청소년 음주 14.9%, 청소년 자살 충동 19.7%, 자살기도 8.9%(최근 KBS의 비공식 조사에 의하면 연간 100여명이 청소년들이 자살에 성공하였고 대다수가 入試나 공부성적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이며 청소년의 16.0%가 가출 경험이 있다. 청소년의 35.8%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고 12.1%가 성교경험을 하였고 자위해위는 85%가 달한다. 한국청소년의 3가지 소원은 上級學校 進學, 成績向上, 學校問題 解決이 가장 많아 한국 청소년의 정신적 지상과제가 무엇인지 잘 말해 주고 있는 소견이다.

홍강의(1983, 1986)등의 청소년 정신과 입원 및 외래 환자의 통계를 살펴보면, 불안장애 12.4%, 정신분열 12.4%, 우울 11.1%, 틱 장애 8.9%, 정신지체

6.8%, 간질 6.5%, 신체화 장애 6.0%, 적응장애 5.4%, 성격장애 4.1%, 행동장애 3.3%, 전반적 발달장애 2.7%, 스트레스 장애 2.7%, 야뇨 2.7%, 주의력결핍증이 1.9%, 말더듬이 1.8%이었다. 입원 환자의 경우는 정신분열 25.4%, 틱 및 스트레스 장애 10.2%, 행동장애 8.5%, 적응장애 6.8%, 불안장애 6.8%, 우울 6.8%, 해리장애 5.0%, 전반적 발달장애 5.0%, 정신박약 3.4%, 신체화 장애 3.4%, 신체양장애 3.4%, 경련성장애 2.7% 기타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사에서 실제 나타나는 증상은 身體증상이 가장 많았는데, 26.7%가 두통, 복통등의 신체증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情緒의인 증상 즉, 불안, 우울, 신경질 등이었으며 세째로 많은 것이 사회성의 결여, 대인관계의 문제내지 회피, 이상행동이 각각 6.6%, 6.3%였고 학교거절증이 5.9%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틱, 공격성, 학업문제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不安障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장 큰 불안의 대상은 역시 공부, 성적이었고, 이것은 면밀한 분석에 의하면 성적이 떨어지면 대학진학이나 장래 진로선택에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지만 이것과 관련지어서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부모가 나를 버리거나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內面的 恐怖가 가장 중요한 시험공포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7. 精神障礙의 種類

靑少年期の 精神障礙는 다음의 세군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볼수 있다.

가. 兒童期 문제의 연속으로써의 정신장애

청소년기의 보이는 정신장애가 모두 청소년 발달에 의해서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정신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상당수는 그 문제의 시작이 아동기로서 아동기에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청소년시기까지 持續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동기에 불안과 우울을 경험했던 청소년이 그것이 잘 해소되지 않았을때 청소년 시기에 더 악화되거나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고 더 뚜렷한

것으로써는 과잉 운동증, 주의력 결핍장애, 정신지체같이 아동기부터 시작된 문제가 청소년기가 되어 學業이나 친구관계, 社會性 發達 등이 더욱 힘들어지는 경우를 들 수가 있다.

나. 靑少年期 자체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장애

(1) 正體性 障礙

정체성장애란 정체성의 수립이 곤란하고 지연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생의 목표, 직업선택,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주체성의 결여, 또 종교적, 도덕적 가치체계의 문제, 성(性)적 자아상이나 성적 충동 억제의 문제 등의 큰 정신적 혼란을 가지고 있으며 주관적으로는 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Marcia(1966)는 정체성상태(Identity status)를 정체성성취, 정체성폐쇠, 정체성혼란, 정체성유예, 네가지로 나누었는데 후 3자가 정체성 장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스트레스 장애

지속적인 공부와 시험, 성적에 대한 압력 등으로 인하여 긴장이 계속되므로써 여러가지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되는데 가장 흔한 것이 긴장성 두통이나 소화불량, 복통이나 신체적인 증상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들을 또한 다음에 말한 불안이나 우울과 겹쳐서 나타날 수가 있다.

(3) 정서장애

이에 속하는 것은 불안, 우울, 강박, 히스테리 등이며 주로 신체적인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나 근본적으로 내면적, 심리갈등에 의한 불안, 우울, 초조, 신경질 등을 포함한다. 소위 “高3病”이나 “中3病”, “入試病”, 최근에 “시험병”이라고 불리우는 것중에 가벼운 형은 이러한 불안이나 우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정서장애가 심각하게 오래 계속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청소년 중에는 自殺을 시도하기도 한다.

(4) 비행 및 행동장애

가출, 도벽, 공격, 폭력 등 기타 반 사회적 행동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권익을 손상하는 행동들을 보이는 청소년들로서 아동 양육의 문제성과 잘못된 교육관이 그리고 결손가정의 증가와 애정결핍, 훈육 부재가 그 원인적 요소로 작용한다.

(5) 약물남용

약물남용은 그 자체가 문제일수도 있지만 다른 정신장애와 병행하여 나타나는 일이 많고 특히 비행군과 우울 증상을 가진 청소년에게 많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히로뽕 등 각성제 증가는 입시가열, 입시병과도 관련지어서 생각하여야 된다. 전체적으로 藥物濫用은 가족관의 관계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정신적인 지지의 不足, 疏外, 외로움 등과 밀접히 관계된다.

(6) 일시적 정신착란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래 계속되고, 피할 수 없는 갈등과 좌절을 경험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나 변화를 접했을 때 일시적으로 정신적혼란, 現實歪曲을 초래할 수 있는데 소위 “高三病”이나 “中三病”의 일부 심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 成人 精神障礙의 始作

청소년기는 또한 전형적 성인 정신병이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특히 성격장애는 그 시작이 대부분 청소년기로서 의존적 성격, 강박적 성격, 정신 분열양 성격, 경계성 성격장애 등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로 조울증이 이 시기에 시작할 수 있으며 이것은 조증과 우울증 즉, 기분이 너무 좋고 들떠 있는 상태와 우울의 상태가 반복되는 상태를 애기하고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대개의 경우 30대에 시작하나 최근 청소년기에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세째는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분열증은 현실과의 접촉을 점차 회피하며 대인관계에서의 도피, 이상한 생각과 행동등을 보이며 사고와 현실검증 능력에 큰 장애를 일으키고 不適切한 感情 표시를 하는 것을 주 증상으로 하는데 전 인구의 1%에 해당하며 이것이 17세부터 20세 사이에 가장 많이 시작한다.

8. 청소년 精神健康을 위한 對策

가. 가정환경의 改善과 機能強化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심리의 발달을 이해하고 부모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청소년의 입장에서 精緒的, 心理的인 要求에 응할수 있도록 父母

교육이 弘報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가 청소년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훈육이나 가정지도에 父親이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문제 있는 가정, 부부간의 문제 등을 相談과 치료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 意識의 變化로써 단순한 성적향상, 대학진학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정신건강상 매우 나쁘며 청소년 교육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人間性的 成熟에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 教育制度 및 社會風土의 改善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입시 준비과정으로서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성적 좋은 상위권 학생의 중심이 아니라 전체 학생을 위한 인간교육, 사회생활교육, 진정한 의미의 全人教育이 실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영·수 등 주요 암기 과목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교양, 오락 등 다양한 교육과 취미생활 그리고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 친구와의 관계, 장래 사회생활의 준비를 강조하는 새로운 교과과목이 신설되어야 하리라 본다. 人間關係教育, 保健教育, 豫備 父母教育 등을 신설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대화를 갖는가를 가르치고, 음주, 흡연, 성교 및 성병, 약물남용 등에 대한 철저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豫備 父母教育에서 아동의 발달, 아동심리, 남녀관계, 성생활, 결혼, 자녀의 양육, 훈육방법 등을 가르침으로써 사회생활과 식상생활 및 결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중·고등학교의 교사의 처우개선과 자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학교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정신적 발달을 돕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존경받는 스승상으로 정립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全人的인 教育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의 학생수를 점차 감소시킴으로써 30여명 이하의 소규모 학생수로 줄이는 制度改善이 필요하다. 각 학교에 자격있는 전담교사나 학생 심리학자가 있어야 겠는데 각 학년에 적어도 1인 정도, 500명에 1인 정도의 相談教師 내지 心理學者가 필요하다고 본다. 社會的, 國家的 次元에서의 조치는 마스크를 통한 대중교육 및 교양 프로의 제작이 중요하겠고 폭력과 성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무조건적으로 억제

하거나 숨기기 보다는 건전한 방향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입시제도와 교육행정의 대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교사나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대학입시 위주의 의식에서 탈피하도록 해주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체 국민의식을 경쟁, 황금만능, 성공 위주의 방향에서 좀더 인간성의 확립과 정서적인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의 수립과 문제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대중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다. 정신장애 청소년을 위한 治療와 對策

정신장애 청소년이 발생하였을때 이를 조기 발견하고 적합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인력으로서의 상담교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청소년전문의사 등이 있다. 靑少年指導를 위한 이러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訓練院의 창설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문제청소년이 발생하였을때 일차적으로 家庭에서 父母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청소년 자신에게는 상담내지 정신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가 학교나 기타 사회단체에서 행해질 수 있는 相談教師制度 및 相談所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겠다. 이상의 방법은 그 문제성이 경미하고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지만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청소년을 위하여는 일시적 격리, 입원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 치료와 특별교육이 필요한 장애청소년을 위하여는 학습, 생활지도, 정신치료를 포괄적으로 장기간(6개월이상 2,3년까지) 시행할 수 있는 長期寄宿治療所가 설치되어야 한다.

9. 結 論

청소년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마지막 成熟期로 身體的 成長은 물론 心理的 精神的 發達課題를 이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격동과 變

化의 時期이다. 그들은 솟구치는 성적충동과 공격성을 조절하고 승화시켜야 하며 아동기적 의존에서 벗어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율성을 성취하여야 하며 동시에 자기 중심적, 가족중심적 자아를 초월한 보편타당하고 이상적인 자아를 찾아 가치관과 사회인으로서의 自我意識과 正體性을 完成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은 쾌락과 금욕, 현실과 이상, 감성과 이성, 의존과 독립, 개인과 사회의 양극적 대립속에 고민하고 좌절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극복함으로써 좀더 차원높은 자아가 형성되며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成人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정신건강상 가장 위험하고 취약성 높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정신건강상 이제까지 문제되는 것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여 정신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제2의 찬스이기도 하다. 부모·교사와 사회공동체의 모든 기성인은 이러한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적합한 役割과 액션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身體的, 心理的 發達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서 정신건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다. 또한 정신건강은 청소년발달에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과잉한 불안과 자신감의 결여, 실망과 우울, 견딜수 없는 압력과 스트레스, 현실도피적 약물남용과 자살, 자아통제 능력의 결여로 인한 행동문제등을 가진 청소년이 어떻게 학업에 전념하고 自我正體性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일문해 본다면 기성세대의 근시안적, 생존위주, 물질만능적 사상의 모순성을 쉽게 알수 있고 바로 기성세대의 청소년을 위한다는 노력이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정신건강을 위하여 부모는 가정생활을 통하여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과 애정을 공급함으로써 청소년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안심하고 학업과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와줄수 있다. 教育家는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올바른 인생관을 나눔으로 청소년들에게 전인적 인격의 완성을 도와주고 폭넓은 가치관과 世界人으로서의 긍지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며 혹시나 가정에서 얻지못한 정신적 지지와 격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인들은 자기자신 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공동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청소년 발달을 저해하는 사회적 병폐와 악의 추방과 제도적 모순을 제거하는데 공동액션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國家的 政策的 次元에서도 물론 사회적 병폐와 악의 제도 자체 제거는 물론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개개인이 교육제도의 모순과 횡포에 노예가 되어 결과적으로 상품가치는 지녔으나 인간성과 생의 의미를 상실한 불행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생존의 위협과 전제주의적 인권박탈의 위협에서 벗어나 생의 의미를 찾고 인권의 보장은 물론 自我實現을 보장해 줄 민주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적 정의사회의 구현은 지금의 청소년이 그들의 발달과제를 성취하고 건전한 정신적 기초를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 정신건강이야말로 경쟁적 고도의 技術社會에서 생존할수 있는 기본 요구조건이다.

參 考 文 獻

- 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I), 정신건강연구 11:1-40
- 민병근, 이길홍, 김현수(1981), 한국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한국의 과학 13:61-75
- 박성수(1988), 청소년의 교육심리적 발달의 문제와 과제, 한국걸스카우트 창립 42주년 기념 여성운동 심포지움 논문 pp. 201~218
- 청소년대책위원회(1987) 청소년 백서
- 최형관, 홍강의(1982), 정신병동에 입원한 중학생환자의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21:565-572
- 홍강의(1984), 제2 개별화시기로서의 청소년기, 정신의학보 8:395-401
- 홍강의, 이영식(1986), 소아정신과 외래 청소년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25:183-192
- Erikson, E.H.(1963), Childhood and Society, Norton, New York
- Marcia, J.E.(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51-558

Ⅲ. 靑少年 藥物濫用 및 非行과 對策*

1. 緒 論

우리나라에서 靑少年들의 藥物濫用이 社會問題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年代 以後 부터였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藥物濫用に 직접 關係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關心이 있었지 社會全般의 關心을 끌지 못하였다.

1980年代에 들어와서 본드등의 藥物濫용으로 인한 被害가 急増하자 藥物濫用の 問題를 인식한 社會團體 및 言論機關에서 社會的 關心을 촉구하기 위한 努力이 시작되게 되었다.

美國社會의 最大의 公敵이 藥物濫用이라는 事實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대로 藥物濫用을 방치하였다가는 靑少年은 물론 社會全體가 藥物로 인한 苦痛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결과이었다.

이제 靑少年 藥物濫用の 問題는 國民保健的 次元의 問題로서 이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論議가 요구되고 있다.

본 발표는 靑少年들의 藥物濫用 實態를 먼저 살펴본뒤 그에 따른 對策을 제시하는 순으로 하였다.

2. 靑少年 藥物濫用の 實態

원래 藥物濫用이라 함은 醫療行爲 규정에 맞지않게 약물을 持續的으로 또는 散發的으로 使用하여 氣分·感情·思考와 行爲의 變化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남용되는 약물의 종류를 分類함에는 세계정신 의학회(APA)의 10개 분류

* 金聖二, 梨花女子大學校 社會事業學科 教授

와 세계보건기구(WHO)의 11개 분류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실정에 맞게 조정 분류한 뒤 吸煙 飲酒는 물론 피로회복제까지 포함한 9가지 종류에 의해서 實態를 살펴 보았다. 인용자료는 중·고등학교 靑少年 2,700명, 근로 靑少年 605명, 非行 靑少年 916명을 대상으로 1988년 5월 大韓赤十字社에서 調査 發表한 資料를 基礎로 그 實態를 살펴 보았다.

가. 藥物濫用 實態

① 吸 煙 : 흡연 경험자는 학교청소년 36.6%, 근로 청소년 32.1%로 비슷한 경향이나 비행 청소년은 94.4%로 거의 대부분이 吸煙 經驗者이었다.

② 飲 酒 : 음주경험자는 학교청소년 50.3%, 근로청소년 71.6%로서 학교 청소년의 절반이 음주경험이 있고 각 집단들 간의 차이는 20% 정도이었다.

③ 疲勞回復劑 : 피로회복제 사용 경험자는 학교 근로 비행청소년집단 모두 90% 내외의 높은 수준이었다.

④ 鎮痛劑 : 鎮痛劑 사용 경험자는 학교 근로 비행청소년집단 모두 70% 내외이었으나 勤勞靑少年 集團에서 77.4%로 가장 높아 勤勞靑少年들이 勤勞와 關聯하여 많은 진통제를 사용하는 事實을 엿볼 수 있다.

⑤ 覺醒劑 : 각성제 使用經驗者는 학교 근로 非行靑少年集團에서 모두 15~18%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⑥ 安定劑 : 안정제사용은 학교 근로청소년 모두 5% 미만의 使用頻度를 나타냈으나 비행청소년들이 27.7%라는 높은 빈도를 나타내 安定劑 濫用과 비행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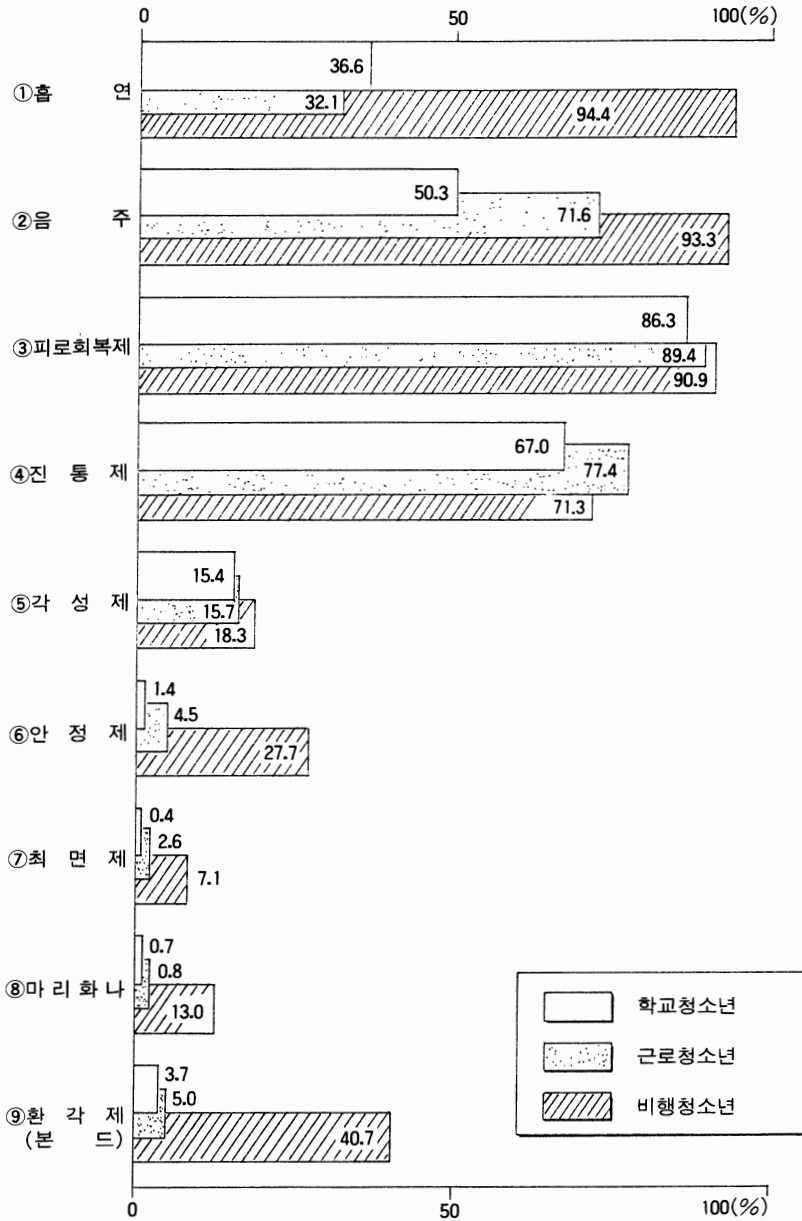
⑦ 催眠劑 : 최면제 사용은 학교청소년 0.4%, 근로청소년 2.6%, 비행청소년 7.1%로서 최면제 사용도 安定劑와 같이 非行과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볼 수 있다.

⑧ 마리화나 : 학교청소년의 0.7% 근로청소년의 0.8%로 낮으나 비행청소년은 13.0%나 되는 높은 사용률을 나타냈다.

⑨ 본 드 : 본드사용 經驗者는 학교청소년 3.7%, 근로청소년 5.0%로 비슷하나 非行靑少年集團에서는 40.7%로 높았다(그림 1 참조).

지금까지 9가지 麻藥使用經驗者의 분포를 볼때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림 1] 약물사용경험자 분포



상당수가 吸煙 飲酒의 經驗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疲勞回復劑, 鎮痛劑, 覺醒劑의 濫用이 뚜렷하여 麻藥依存度가 높았으며 셋째, 安定劑, 催眠劑, 마리화나, 본드 使用經驗者는 非行靑少年 集團에서 더욱 많아 藥物과 非行과의 關聯性을 알 수 있었다.

나. 非行行爲 實態

靑少年들의 藥物濫用이 주요 社會問題가 된 이유는 藥物濫用 靑少年의 수효가 增加하고 年少化 함은 물론 藥物濫用이 非行이나 犯罪에 깊은 관련을 맺기 때문이라고 함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家庭이나 學校 및 社會生活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社會的 非行을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정리하여 그 實態를 把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① 反 抗 : 부모나 어른들에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심하게 反抗한 적이 있는가? 에 대해서 학교와 근로청소년은 40% 내외로 비슷하게 그렇다고 應答하였고, 非行靑少年은 65%로 높았다.

② 無斷缺席 : 학교나 직장에 無斷缺席한 적이 있는가? 에 대해서 학교청소년은 16.5%, 근로청소년은 42.3%, 비행청소년은 85.8%이었다.

③ 學校處罰 : 학교생활 중에서 쾰닝이나 싸움 등의 문제로 학교로부터 處罰을 받은 청소년은 학교 및 근로청소년들에서는 8% 內外이었고 非行靑少年은 그 여섯배가 넘는 51.2%이었다.

④ 家 出 : 가출경험은 위의 학교처벌에서와 같이 학교 및 근로청소년들에서는 8% 내외이었으나 非行靑少年들은 그 열배인 79.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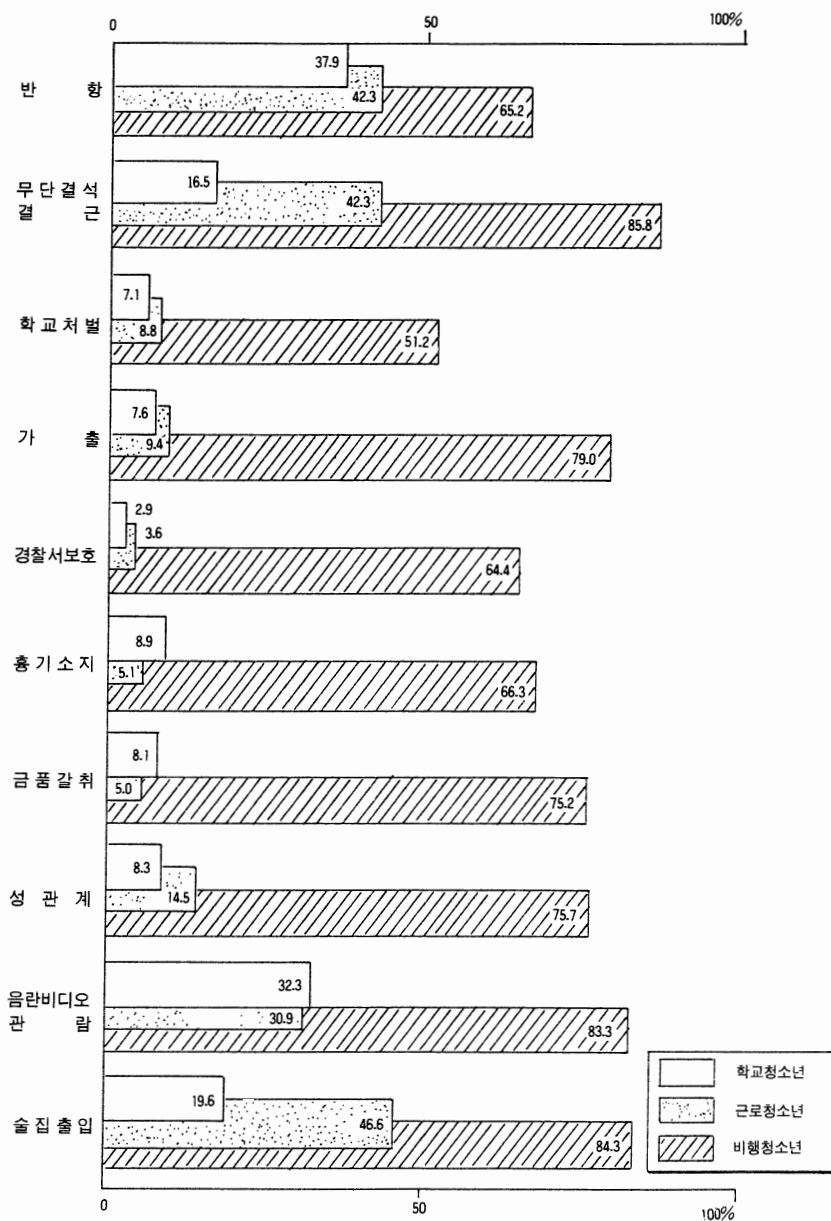
⑤ 警察署 保護 : 학교와 근로청소년은 경찰서 보호 經驗者가 3% 내외이나 非行靑少年 중에서는 64.4%이었다.

⑥ 凶器所持 : 凶器所持 經驗者는 학교 청소년 중에서는 8.9%, 勤勞靑少年 중에서는 그 절반인 5.1%로 낮았고 非行靑少年 중에서는 66.3%이었다.

⑦ 金品喝取 : 금품갈취 經驗者는 학교청소년 중에서는 8.1%, 勤勞靑少年 중에서는 그 절반정도인 5.0%로 낮았고 非行靑少年 중에서는 75.2%이었다.

⑧ 性關係 : 성관계 經驗者는 학교靑少年 중에서는 8.3%이고 勤勞靑少年 중에서는 14.5%이고 非行靑少年 중에서는 75.7%이었다.

〔그림 2〕 비행행위 경험자 분포



⑨ 淫亂비디오觀覽：淫亂비디오 觀覽 經驗者는 학교 및 勤勞靑少年 中에서는 30%정도이고 비행靑少年 中에서는 83.3%이었다.

⑩ 술집出入：술집출입 經驗者는 학교靑少年 中에서는 19.6%이고 勤勞靑少年 中에서는 46.6%이고 비행靑少年 中에서는 84.3%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學校靑少年들은 40% 정도가 부모나 어른에게 심하게反抗해 본 적이 있고 30% 정도가淫亂비디오를 봤다고 한다. 또 無斷缺席을 하거나 술집을 出入하는靑少年이 16%정도 되었다. 특기할 것은 警察保護를 받은靑少年이 3%나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學校處罰, 家出, 凶器所持, 金品喝取, 性關係등의 문제성 非行行爲를 한靑少年이 각 應答分布에서 8%정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볼 때 학교내에서는 8%의 심각한 非行行爲靑少年集團이 存在한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16% 정도의 무단결석 술집출입 등을 일삼고 있는 不良靑少年集團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30~40% 정도의淫亂비디오 觀覽이나反抗등의 가벼운 非行行爲集團이 있다는 점이다.

勤勞靑少年들은 일반적으로 學校靑少年들과 비슷한 傾向을 보이나 無斷缺席 性關係 술집출입률이 높았다. 無斷缺席率이 높은 것은 勤勞靑少年의 就業에서 起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性關係, 술집출입 比率이 높은 것은 勤勞靑少年의 무절제한 性向과 아울러 社會生活人으로서의 經驗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非行靑少年들은 역시 비행행위 부문에서 뚜렷이 非行率이 높음을 나타냈다. 모든 非行行爲 部門에서 50% 이상의 經驗率을 보였다. 學校處罰과 警察 署保護등에서만 50% 이내이었고 대부분의 비행행위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 藥物濫用과 非行行爲 經驗間의 發生時期 分析

靑少年들의 藥物濫用과 非行行爲間의 關係를 糾明하기 위해서 藥物을 使用해 본 적이 있는靑少年과 非行行爲 經驗이 있는靑少年들만을 선정하여 각각의 經驗을 언제 처음 했는가를 分析하였는데 그 결과에서 提示되고 있는 세 集團의 藥物使用時期와 非行行爲時期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학

교청소년들의 各 經驗時期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3과 같다.

그림3에서 보면 學校青少年들은 疲勞回復劑 濫用으로 부터 藥物濫用을 始作한다. 13세에 吸煙을 하고 14세에 鎮痛劑를 使用하여 14세 후반에 集中的으로 覺醒劑, 飲酒, 본드, 마리화나를 使用하고 15세 安定劑 16세에 催眠劑 使用을 始作한다.

非行行爲는 無斷缺席으로 부터 시작한다. 이 無斷缺席은 吸煙을 始作한 바로 직후인 13세에 나타나며 곧이어 金品喝取의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14세 후반에 가서는 學校處罰을 받고, 이 시기에 反抗과 家出이 뒤따른다. 이때 覺醒劑 服用, 飲酒 등이 竝行되어 일어나며 家出 뒤에 본드, 마리화나 등의 藥物을 使用한다. 15세에 들어 淫亂비디오를 보거나 凶器所持가 동시에 일어난다. 淫亂비디오 觀覽은 性關係를 자연 수반하게 되고 安定劑 등의 服用도 이 시기에 나타난다. 그 결과 15세 후반에 가서 警察署 保護나 술집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催眠劑 등의 藥物服用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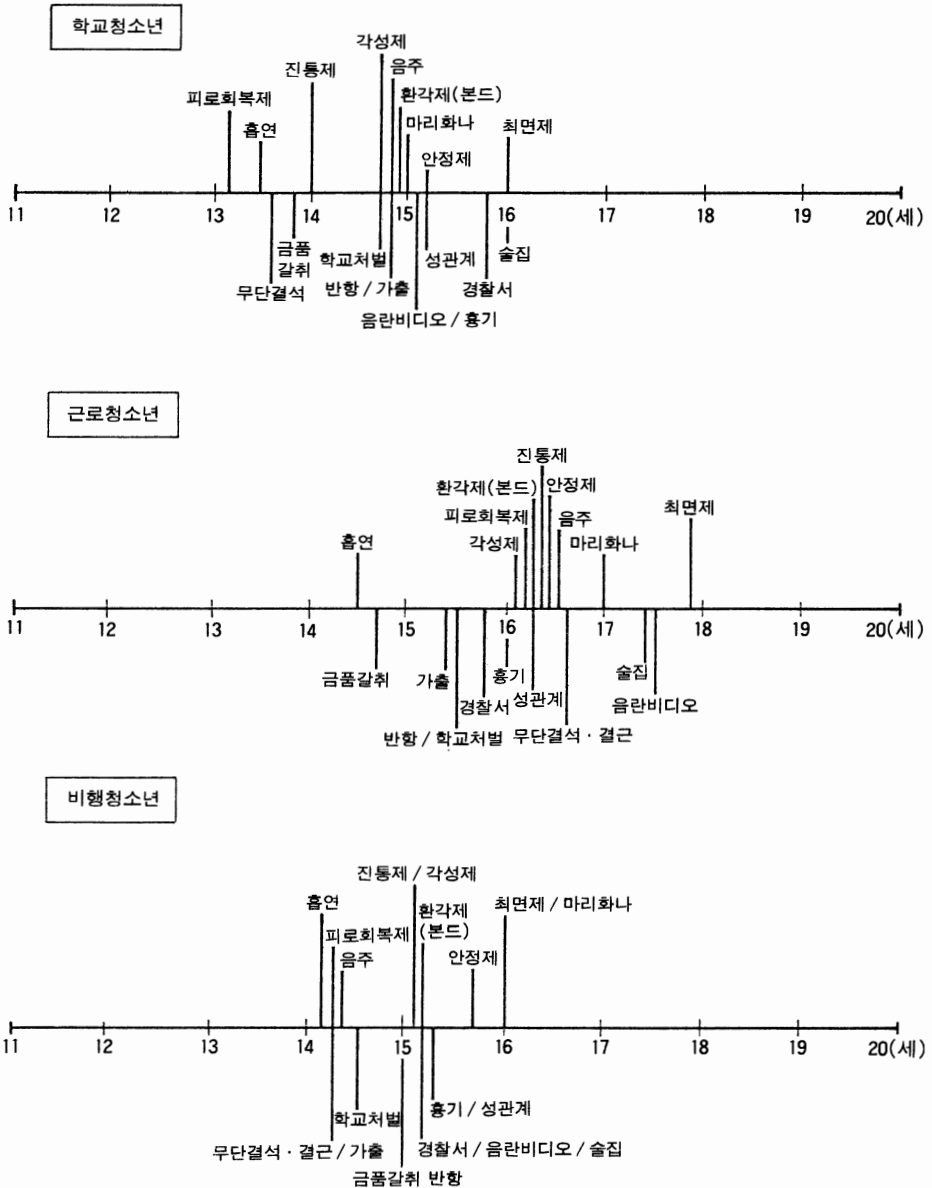
위의 사실로 볼 때 ①13세는 吸煙관여 時期로서 無斷缺席 金品喝取가 일어나는 非行行爲 始作時期로, ②14세는 鎮痛劑, 飲酒를 비롯한 藥物을 濫用하고 學校處罰, 反抗과 家出이 있는 非行行爲 進行時期로 ③15세는 安定劑, 催眠劑를 使用하며 淫亂비디오 性關係 및 警察保護를 받는 非行行爲 發展時期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段階別로 藥物이 심해가는 傾向과 非行이 심해가는 關係를 時期的으로 分析해 볼 때 藥物濫用과 非行 青少年 간의 密接한 相關關係를 볼 수 있다.

勤勞青少年에 있어서는 學校青少年들과 環境의 背景이 달라 社會構造的 理由로 社會非行을 먼저 저지른 뒤에 結果的으로 藥物濫用の 非行行爲를 經驗하고 있었다. 즉 14, 15세에 社會的 非行時期를 맞고 16세에 藥物濫用 時期를 지나며 17세에 마리화나, 催眠劑를 使用하며 술집출입과 淫亂비디오를 觀覽하는 世俗的 非行時期를 겪고 있었다.

非行青少年에 있어서는 學校青少年 보다는 늦으나 勤勞青少年 보다는 이르게 14세에 吸煙을 시작해서 가벼운 非行行爲 時期를 지나 15세에 鎮痛劑 覺醒劑 본드 등의 藥物과 金品喝取 등의 무거운 非行行爲 時期를 겪어 단기 간에 각종 藥物濫用과 非行行爲를 겪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

이 세 集團을 比較해 볼때 學校青少年은 일찍 非行을 始作하여 여기에서

[그림 3] 집단별 약물남용 시기 및 비행행위 시기



非行靑少年 勤勞靑少年의 集團이 分離되어 나가는 源泉的인 集團이며 勤勞靑少年은 늦게 非行行爲와 藥物濫用을 經驗하는 遲刻型이고 非行靑少年 集團은 2년내에 모든 非行을 經驗하는 爆發型이라고 整理할 수 있다.

라. 藥物濫用과 非行行爲 經驗間의 要因 分析

學校靑少年의 藥物濫用과 非行行爲와의 關聯性을 內容的으로 分析하기 위해서 要因分析(Factor analysis) 方法을 使用하였다. 즉 非行行爲들과 그에 關聯되는 藥物을 發見하기 위해서 學校靑少年들이 應答한 藥物濫用經驗 9개와 非行行爲 10개를 要因分析한 것이 표1에 提示되어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主要要因이 發見되었다. 이들 3개 主要要因들 중에서 要人負何值(Factor loading)가 .500이상인 變數들을 각 要因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要因1에서는 본드, 家出, 警察署保護, 金品喝取 등이 主要變數로 나타나 본드는 심각한 非行行爲와 關聯되는 攻擊性 非行行爲의 대표적 藥物이고,

要因2에서는 吸煙, 飲酒, 淫亂비디오 觀覽이 主要變數로 나타나 吸煙과 飲酒는 淫亂비디오 觀覽등의 快樂性 非行行爲의 대표적 藥物이며,

要因3에서는 催眠劑, 마리화나가 主要變數로 나타나 공격적이거나 快樂的 非行과는 관계가 적은 退行性 非行行爲의 代表的 藥物임이 밝혀졌다.

요약한다면 본드는 攻擊的인 靑少年들과, 吸煙, 飲酒는 快樂追求의 紊亂한 靑少年들과, 催眠劑, 마리화나는 社會逃避的인 靑少年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마. 藥物濫用의 理由

學校靑少年들이 藥物을 濫用하는 이유는 消極的, 中立的, 積極的 理由로 나누어 보는 것이 체계적이다.

藥物을 使用하는 理由의 消極的 側面이라고 함은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잠을 안자기 위해서, 심심해서, 부모나 선생님께 대한 반발심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退行的이고 否定的인 側面을 말하고, 中立的 側面이라 함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藥에 대한 副作用을 모르고, 값이 싸기 때문에, 술이나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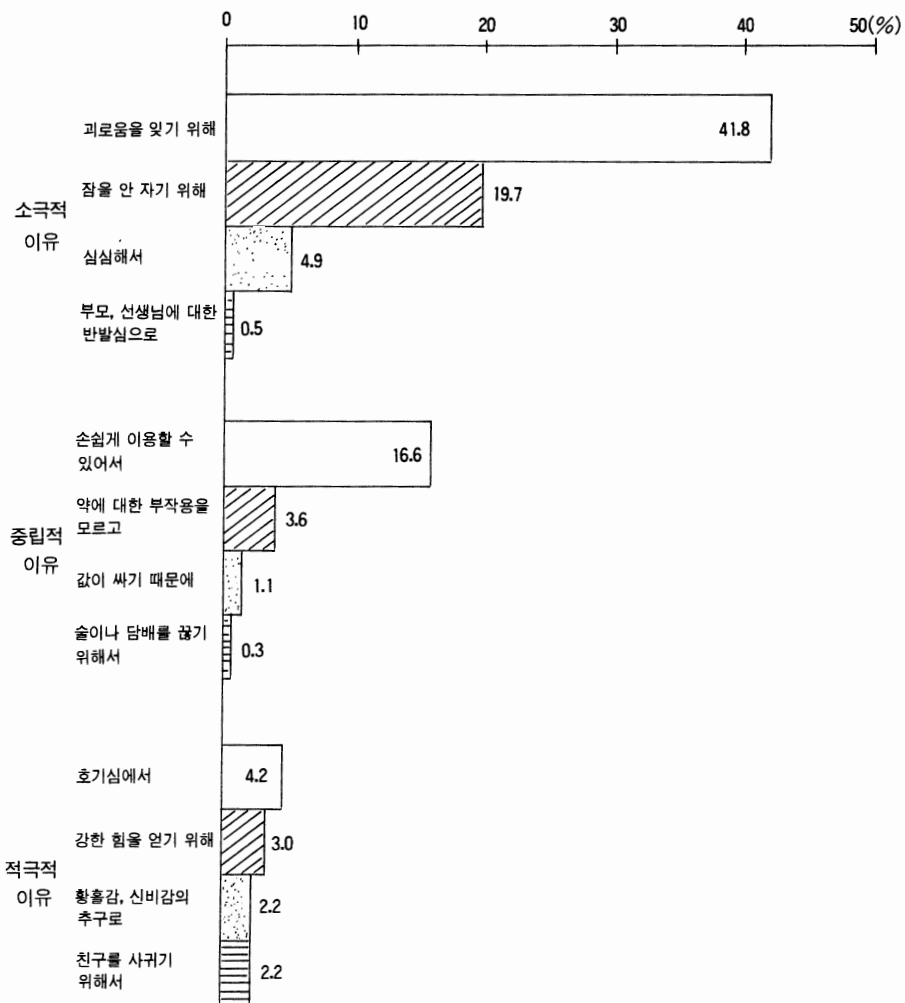
표 1. 요인분석 : 청소년들의 약물경험, 비행행위 및 부정적 가치관의 요인분석 요약
(Varimax rotation with PA2)

항 목				요 인 1 (공격성비행)	요 인 2 (쾌락성비행)	요 인 3 (퇴행성비행)
흡		연		.343	.605	.012
음		주		.058	.615	.091
진	통	제		.024	.137	.083
안	정	제		.149	.042	.366
최	면	제		.227	.074	.859
각	성	제		.123	.420	.164
피	로	회	복	.081	.372	.005
마	리	화	나	.363	.061	.732
본		드		.567	.085	.251
심	한	반	항	.235	.195	.095
무	단	결	석 · 결	.419	.166	.102
학	교	처	벌	.429	.203	.164
가		출		.715	.104	.088
경	찰	서	보 호 (싸 움 등)	.722	.070	.285
흥	기	소	지	.488	.383	.097
금	품	갈	취	.540	.278	.123
성		관	계	.383	.282	.172
음	란	비	디 오 관	.413	.618	-.020
술	집	출	입	.360	.444	.098
설 명 변 량 (%)				39.4	14.3	9.8
누 적 설 명 변 량				39.4	53.7	63.6

※ 요인4 이하는 요인부하치가 .500 이상인 것이 없어 제시하지 않았음.

배를 끊기 위해서 등과 같이 機會的이거나 對替的인 이유에서 藥物을 使用하는 것을 말한다. 積極的인 側面이라 함은 好奇心에서,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황홀한 神秘感의 追求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등의 肯定的이고 發展的인

[그림 4] 약물 사용이유(학교청소년)



認識에서 나온 藥物使用 態度를 말한다.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물을 사용하는 가장 큰 理由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41.8%), 잠을 안자기 위해서(19.7%)등의 消極的인 理由가 67%로 3분의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손쉽게 利用할 수 있어서(16.6%), 藥에 대한 副作用을 모르고(3.6%) 등의 中立的이었다. 호기심(4.2%)이나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3.0%) 등의 積極的인 理由는 12%이었다.

이 結果를 볼때 우리나라 靑少年들은 好奇心이나 강한 힘을 얻기 위한 이유에서 보다는 괴로움과 잠을 안자기 위해서와 손쉽게 利用할 수 있는 理由에서 주로 濫用하고 있으므로 個人的 苦悶, 入試 그리고 藥物流通의 無秩序에 그 原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討議 및 對策

가. 討 議

본 발표에서는 學校靑少年들 중 飲酒하거나 吸煙하는 靑少年이 각각 50%와 36%이고 覺醒劑는 15%이며 安定劑, 催眠劑, 마리화나, 본드 등의 심각한 藥物을 使用하는 靑少年은 1~4%로 밝혀졌다. 이는 1986년 美國 中·高等學校들 중 飲酒 79%, 覺醒劑 25%, 安定劑, 催眠劑, 마리화나 등은 5~46% 사용하고 있다는 統計值 보다는 낮은 것이다.

그러나 특기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잠을 쫓는데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覺醒劑 使用에 있어서 美國의 25%에 못지 않게 우리나라에서도 15%로 높게 나타난 事實과 催眠劑, 安定劑 등의 기타 심해진 藥物使用에서는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는 事實이다.

이 두가지 事實의 理由는 藥物을 使用하는 理由에서 찾아볼 수 있다.

美國에서는 好奇心이나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나 幻覺효과를 追求하는 등의 積極的 理由에서 藥物을 使用하나² 우리나라 靑少年들은 藥物使用을 괴로

1) Barnes., G. M., "Adolescent Alcohol and Other Drug Use", *Pratice Applications*, 3(4), 1986, pp. 2-5.

2) Hundebly., J., "Drug Usage and Outstanding Performance among Young Adolescent", *Addictive Behavior*, Vol. 10, 1985. p. 419.

움을 잇기 위해서나 잠을 쫓기 위해 사용하는 등의 消極的 理由比率이 높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본드가 다른 藥物과는 달리 4%로 높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앞으로 積極的 理由로 藥物을 使用하는 現象을 豫示해 주고 있다.

美國의 학자들³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藥物濫用과 非行行爲간의 關係도 본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우기 非行靑少年들은 여러가지 藥物을 使用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Tinklenberg⁴가 밝힌 여러 藥物使用과 強力犯罪와의 關係性도 재 立證되었다.

藥物使用과 非行行爲 時期에서도 關聯性을 찾아볼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吸煙을 10.2세에서 시작해서 마리화나 11.2세, 飲酒 11.6세, 安定劑 등의 기타 藥物 12세, 麻藥類 13세의 進行過程을 보이고 있다.⁵ 우리나라에서는 吸煙을 13.5세에 시작해서 飲酒 14.8세, 기타약물 14~15세, 마리화나 15세의 藥物使用 時期 形態를 보이고 있어 美國에 비해 약 2년간 늦게 발생하며 進行順序는 비슷한 方向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마리화나 사용은 文化的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藥物濫用과 非行行爲간의 要因分析도 Fors와 Rojek⁶가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같았다. 그들은 약물과 非行과의 關係分析에서 본드는 家出, 自動車도적, 暴行 등과 密接한 關係가 있고 飲酒 吸煙은 마리화나 興奮劑 使用과 關係가 깊고 安定劑, 催眠劑 使用은 麻藥販賣와 關係가 깊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3개요인이 再 證明됨으로써 본드는 공격성 非行, 吸煙과

3) Farrow, J. A., & Forench, J., "The Drug Abuse Delinquency Connection", *Adolescence*, 21(84) 1986. p. 365.

4) Tinklenberg, J. R., Murphy, P., Murphy, P. L., & Pfefferbaum, "A Drugs and Criminal Assaults by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Vol. 13, 1981, pp. 227-287.

5) Farrow & French, 1986, 전게서 p. 955.

6) Fors, S. W. & Rojek, D. R., "The Social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Adolescent Drug Use Patterns", *Juvenile Drug Education*, 13(3), 1983, p. 211.

飲酒는 快樂性 非行, 催眠劑 마리화나는 退行性 非行을 대표하는 藥物임을 밝혀내며 확실히 명명할 수 있었다.

나. 對 策

우리나라 靑少年들의 藥物濫用 頻度は 外國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본드 使用이나 覺醒劑의 濫用에서 우리나라의 特殊性이 나타났다. 더우기 미국에 비해 약간 늦기는 하나 단기 藥物使用 現象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藥物使用이 靑少年 非行行爲와도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을뿐 아니라 선도해 가고 있는 現象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藥物의 種類에 따라 어떤 非行行爲를 誘發시키거나 關係된다는 事實도 發見할 수 있었다.

藥物使用은 어떤 單一社會的 要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부모, 동료, 교사 및 靑少年 관련 社會制度 특히 入試制度 등이 복합적으로 關聯된 問題이다.

靑少年들이 非行行爲에 접근하고, 藥物을 濫用하게 되는 原因을 社會心理的 觀點에서 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하나는 靑少年들로 하여금 藥物 등의 非行에 접근할 수 밖에 없이 밀어 부치는 壓力要因(Push factor)이고 또 다른 하나는 藥物등의 非行에로의 誘因要因(Pull factor)이다.

壓力要因은 教育, 家庭, 社會의 諸般制度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教育制度에 있어서 ①入試制度, ②成績評價制度, ③學校 中退者の 再活機會 부재, ④藥物濫用 위험성에 대한 教育부재, ⑤教師의 態度(吸煙 및 飲酒態度) 등의 要因을 들 수 있다.

둘째, 家庭에 있어서 ①부모의 藥物 依存性, ②家族關係(對話)의 약화, ③약에 대한 무지, ④부부관계의 불화 등의 要因을 들 수 있다.

셋째, 社會에 있어서 ①吸煙, 飲酒의 規制文化 약화, ②처벌의 가혹화, ③물질주의의 문화팽배(정신 내면생활 충족도 부족), ④과도한 노동(勤勞靑少年들의 경우)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誘因要因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課外活動에 있어 ①건전하게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기회의 부재, ②방과후의 친구관계 지도기능 부재등으로 인한 藥物濫用에로의 關心

集中과 非行集團化하게 하는 要因이 있다.

둘째로는 藥物接近의 容易性으로써 ①약물의 과대선진, ②약물구입의 용이, ③藥物濫用 副作用 警告機能 微弱, ④무분별한 藥品販賣 등의 要因이 있다.

셋째로는 우리사회의 飲酒文化 澎湃로써 조기에 飲酒機會 提供 등이 가족 구조가 약화된 상태에서 加速됨으로써 오는 문제가 있다.

靑少年들의 藥物濫用을 抑制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存在하고 있는 藥物濫用의 압력요인과 유인요인들에 대한 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요인에 대한 統制가 效率的으로 이룩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藥物濫用에 대한 철저한 評價制度가 이룩되어야 한다. 藥物濫用에 관한 全國的인 實態調査의 週期的 實施는 물론, 藥物濫用者의 진단 분류를 위한 評價制度 治療效果에 대한 研究가 進行되어야 한다.

둘째로 藥物濫用에 관한 關係法 制度등의 대폭적인 改革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마약법」, 「대마 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의 처벌부문의 재 검토와 관리 집행 기관의 산만성이 정리되어야 한다.

셋째로 靑少年 및 家庭 藥物 關聯人 및 團體에 대한 指導教育 啓蒙이 활발히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체 수용시설에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強化되어야 한다. 이런 계몽 지도 감시의 기능은 社會團體 및 言論機關에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

넷째로 藥物濫用 靑少年들을 위한 再活센터가 별도로 設置되어야 한다. 藥物濫用을 早期에 發見 治療함으로써 靑少年들이 더이상의 습관성·중독성 藥物에 접근하지 않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機關과 專門人力의 養成이 필요하다.

Ⅳ. 靑少年 性問題와 對策*

1. 靑少年의 特性과 現況

가. 靑少年의 特性 및 研究目的

靑少年이란 어린이로부터 成人으로 移行하는 過程으로서 일반적으로 肉體의 發達과 精神의 發達을 基準으로 定義하고 있다.

人間은 누구나 肉體的 構造가 어린이다운데서부터 成人다운데로 變化하는 過程을 거친다. 그 初期에는 症狀이 뚜렷하지 않지만 곧 어린이가 다운데로부터 현저히 벗어나는 狀態가 되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온다. 이러한 狀態가 곧 肉體的으로 靑少年期の 始作이고 그러한 變化가 繼續되면서 成熟이 完了될때까지를 肉體的 發達面에서의 靑少年期라 할 수 있다.

한편 肉體的 變化를 느끼거나 비록 스스로는 確認할 수 없는 狀態라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어린이로서의 感情과는 급격하게 달라짐을 느끼기 始作하면 心理的 成長過程이 始作된 것이다. 이러한 心理的 變化過程은 肉體的 成長過程이 끝난 다음에도 相當期間 成人化될때까지 이어진다. 精神의 側面에서는 이와같은 心理的 成長過程을 靑少年期라고 할 수 있다.

肉體의 情緒的 成熟期間은 個人차가 있으며 社會文化的 水準에 따라서도 差異가 있을 수 있다. 國民營養이나 文化水準이 높은 社會에서는 그렇지 못한데 보다 그 時期가 빨리 와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며 保守의 傳統社會에서보다 開放의인 社會에서 더 빠를 수 있다. 그러나 大體로 靑少年은 年齡으로 區分하는 경우가 많다.

西歐社會에서는 흔히 teenagers(13~19세)를 靑少年으로 看做한다(12). 그

* 洪文植,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首席研究員

그러나 靑少年의 概念은 年齡限界가 絶對的인 것은 아니다. 取扱코저하는 關心事에 따라 年齡限界를 調整할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未婚群을 取扱할 때에는 흔히 20代 중반까지를 포함시키고 學生의 경우는 中·高等學生(13~18세群)을 對象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靑少年期는 肉體的 情緒的 未熟狀態로부터 그것이 成熟되어가는 期間이므로 精神的으로 不安定하고 性的으로 激動期다. 따라서 適應이 힘들고 脫線하거나 性犯罪를 일으킬 憂慮가 높다. 날로 急變해가는 現代社會에서의 性問題는 더욱 深化될 危險이 높다.

西歐式 性開放 風潮와 더불어 大衆媒體에 의한 性情報의 범람으로 性에 대한 傳統的 觀念과 儒敎에 바탕을 둔 保守的 價値觀이 붕괴됨에 따라 世代間의 價値混亂에서 오는 갈등이 深化되고 더욱이 民主化 물결을 타고 團束의 空白을 틈타 一般享樂業所는 勿論, 靑少年을 相對로 하는 만화, 비디오가게에 서까지 음란외설물에 의한 不法的 營業으로 頹廢風潮가 날로 盛해가고 있다. 심지어 家庭에서까지 靑少年 子女들이 父母몰래 淫亂비디오를 接하는 例가 非一非再한 오늘의 現實은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뿐만 아니라 師道의 權威는 失墜되어 가고 教師는 進學指導에만 急急한 나머지 學生들의 生活指導는 거의 등한하는 잘못된 敎育的 雰圍氣도 靑少年들의 性的 放縱과 脫線에 對應力을 잃게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의 靑少年들은 既成世代에 대해 不信과 否定的 認識이 強해지기 쉽고 지극히 利己의이고 個人主義的인 思考는 人生을 安易하게 享樂하려는 폐단을 조장하기 쉽다. 이는 곧 性的 發達의 不健全, 내지 脫線의 危險을 加重시키게 마련이다.

더구나 家庭形便上 敎育水準이 낮은 勤勞靑少年은 保護者가 없거나 父母의 監督領域으로부터 벗어날 경우 그 指導의 손길이 단절되므로 性的 本能과 好奇心을 승화시킬 수 있는 適應力은 더욱 弱化된다. 따라서 이들은 靑少年 가운데도 脫線의 素地가 가장 높은 危險群(Risk group)이라 할수 있다.

本稿는 우리나라 靑少年들의 性과 關聯된 既存資料를 토대로 그 現況과 問題點을 檢討하고 可能한 對策方案을 摸索하는데 主目的을 두고 있다. 이 分野의 既存研究는 主로 中高中生을 對象으로 한 學位論文이 大部分으로서 全國規模의 研究는 아직 한번도 이루어진바 없다. 特定對象에 局限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比較的으로 體系的인 研究는 韓國人口保健研究院에

의한「未婚勤勞女性의 人口 및 性에 대한 知識態度 調査研究」(10)와 中高等 學生과 教師 및 學父母를 對象으로 한「한국청소년들의 생식보건에 관한 연구」(4)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主로 이 두 研究資料를 中心으로 檢討코자 한다.

나. 靑少年 現況

1) 靑少年 人口

WHO 基準(15)에 의한 우리나라의 10-24세 靑少年人口는 1985 人口 및 住宅센서스 統計로 다음 表1과 같다.

표1. 연령별 성별 청소년 인구

연 도	전 연 령		10~24세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	60년대비 증가율(%)
	인 구	60년대비 증가율(%)	남 자	여 자	계			
1960	24,989,241		3,904,672	3,580,186	7,484,858	30.0		
1966	29,159,640	16.7	4,460,039	4,136,817	8,596,856	29.5	14.9	
1970	31,435,252	25.8	5,146,167	4,858,485	10,004,652	31.8	33.7	
1975	34,678,972	38.8	6,084,599	5,712,769	11,797,368	34.0	57.6	
1980	37,406,815	49.7	6,548,088	6,185,416	12,733,504	34.0	70.1	
1985	40,419,652	61.7	6,723,612	6,313,727	13,037,339	32.3	74.2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1960年の 統計를 基準으로 할 때 1985年の 全體人口는 61.7퍼센트 增加한 데 비해 靑少年人口는 74.2퍼센트 增加로 全體人口 增加率보다 12.5퍼센트 포인트 높게 增加했다. 全體人口에 대한 靑少年人口의 比率도 1960年の 30.0퍼센트에서 1985년에는 32.3퍼센트로 그 絶對數가 繼續 크게 增加했다.

靑少年의 問題를 論하는 限 그 對象人口의 繼續的 增加는 그만큼 處方的 프로그램의 投入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本稿에 靑少年 人口現況을 提示하는 바이다.

2) 靑少年 就業

勞働部 統計에 의한 우리나라 就業靑少年 勤勞者數*는 1986年 4月 30日現在 1,368,302名이다. 이는 全體 勤勞者 4,461,250名の 30.7퍼센트이다. 性別로는 男子 431,549名, 女子 936,753名으로 女子 勤勞靑少年이 男子의 倍를 넘는다. 이는 人力需要가 가장 많은 製造業을 비롯, 여러 業種에서 女性 靑少年人力의 需要가 絶對的으로 큰데서 온 結果이다. 全 産業을 통털어 男性 靑少年 勤勞者가 女性보다 많은 業種은 農林水産業, 工業, 電氣業 및 建設業 뿐이다.

앞으로 靑少年들의 就業, 未就業, 또는 業種間의 性問題와 관련된 어떤 特性的 差異點을 밝힐 수 있는 廣範한 研究의 必要性이 提起된다.

표2. 산업별 청소년 근로자 현황(13세~24세)

(86. 4. 30기준)

산 업 별	남 자	여 자	계	구 성 비 (%)
전 산 업	431,549	936,753	1,368,302	100.0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2,876	1,153	4,029	0.3
광 업	7,470	1,192	8,662	0.6
제 조 업	310,657	71,790	1,022,447	74.7
전기개스 및 수도산업	2,745	1,774	4,519	0.3
건 설 업	18,217	11,385	29,602	2.2
도,소매업,및 음식,숙박업	32,274	71,773	104,047	7.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23,810	35,931	59,741	4.4
금융, 보험, 부동산 및	18,340	53,690	72,030	5.3
산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5,160	48,065	63,225	4.6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7.

* 勞働部 1987勞働統計 年鑑에 提示된 統計表에 12歲 以下는 그 絶對數가 極小하여 全體靑少年 就業人口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年齡區間을 13歲-24歲로 하였음.

2. 靑少年의 性問題 實態

靑少年은 아직 社會 構成員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責任이나 社會에 대한 任務等에 理解가 不足하고 情緒的으로도 不安定한 편이다(12). 特히 性에 관한 理解는 近代化 過程에서 急變하는 價値體系에 隨伴하여 既成世代가 經驗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開放的이다.

性에 대한 價値變化는 政治·經濟·社會·文化 等 여러 側面的 複合的 作用에 의하여 일어나겠지만 西歐化 물결에 휩쓸려 健全한 發達軌道로부터 離脫하여 性道德은 極도로 紊亂해지고 그로인한 社會의 혼탁, 特히 未婚靑少年들의 妊娠, 流産, 未婚母, 性暴行 等の 增加는 實로 우리 社會에서 겪고 있는 크나큰 갈등이요 시련이 아닐 수 없다. 이에 具體的으로 提示되고 있는 資料를 통하여 우리나라 靑少年들의 性과 關聯된 實態를 知識, 態度, 經驗 別로 檢討코져 한다.

가. 性에 관한 知識

中高等學生을 對象으로 한 男女生殖生理에 관한 用語의 正答選多型테스트 結果 男女學生 모두 全般的인 性的 理解도가 낮고 各 項目에 대한 理解도에 있어서 男學生과 女學生 間에 두드러진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表3. 參照)

또한 이들 가운데 중학생은 35퍼센트가 키스만으로 妊娠이 成立될 수 있다는 잘못된 性知識을 갖고 있었고 高等學生도 36퍼센트가 性交만으로 妊娠이 可能하다는데 대해 否定 내지 모른다는 應答을 하였다. 中學生의 41퍼센트만이 妊娠症狀의 하나로 月經이 中斷된다는 事實을 指摘했으며 人工流産이란 用語에 대한 뜻의 正答을 指摘한 高校生은 65.4퍼센트 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全般的으로 相當數의 男女學生들이 生殖生理에 대한 基本的인 知識水準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한편 로정숙의 研究에서 高校生들은 데이트, 키스 등과 같은 內容에 대해서는 80퍼센트 이상이 아주 잘 안다고 應答한데 反해 性行爲, 自慰行爲, 夢精, 妊娠에서 出産까지의 過程, 避妊方法, 性病 等에 관해서는 各各 57.4퍼센트, 46.8퍼센트, 81.6퍼센트, 84퍼센트, 90.7퍼센트, 87.2퍼센트가 모른다고 應答하

표3. 남여 생식생리용어에 대한 선다형 설문 정답비율

용 어	남 자	여 자	계
<u>중학생</u>			
수정	58.1	61.1	59.6
월경	44.1	90.5	66.7
고환	28.5	10.1	19.5
<u>고교생</u>			
배란	29.2	49.2	39.0
난관	13.8	17.6	15.7
월경	34.8	55.5	45.1
고환	69.6	33.5	51.9

자료 : 김한경, 남정자, 한혜경, 한국청소년들의 생식보건에 관한연구(Ⅰ)-성에 관한 중고생, 부모, 교사들의 지식 및 태도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여 學生들의 性에 대한 知識이 크게 不足함을 알 수 있다(6).

未婚勤勞女性의 경우 洪文植等의 研究(10)에서 應答者가 스스로 이름을 쓸 수 있었던 避妊方法은 먹는피임약이 全體 應答者의 42.5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콘돔(37.5퍼센트), 殺精劑(25.1퍼센트), 月經周期法(23.1퍼센트), 子宮內裝置(14.9퍼센트), 卵管手術(13.9퍼센트), 精管手術(13.7퍼센트)順이다. 그러나 避妊方法의 使用法에 대해서는 18퍼센트가 먹는피임약, 16퍼센트가 콘돔, 12.6퍼센트가 월경주기법을 안다고 했다. 그외에 殺精劑, 精管手術, 卵管手術, 子宮內裝置, 질외사정법 等の 避妊方法에 대해서는 極히 少數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妊娠과 관련된 주요내용에 대한 知識으로서 妊娠이 되면 월경이 멈춘다는 事實을 알고 있는 未婚勤勞女性은 94.3퍼센트인바 이는 앞에서 본 中學生의 경우에서 41퍼센트 밖에 알지 못하는 것과 比較할 때 현저히 높다. 그러나 월경기간 중에는 性關係를 가져도 妊娠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女性은 67.5퍼센트에 不過하다. 學生이나 未婚勤勞女性이나 모두가 具體的인 性知識에 있어서 그 水準이 낮게 評價된다.

나.性に 대한 態度

· 우리나라 中學生의 경우 婚前 性行爲에 許容的인 態度를 보인 것은 男學生 15.8퍼센트, 女學生 5.8퍼센트였다.

高校生의 경우는 그 許容率이 中學生보다 높아 男學生 37.7퍼센트, 女學生 8.3퍼센트이다. 中高生 共히 男女間의 許容比率은 큰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中學生은 男性 28.7퍼센트, 여성 5.3퍼센트가 「婚前 性行爲」라는 用語조차 잘 모르고 있었지만 高校生은 이 用語를 모르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結婚을 約束한 사이라면 婚前性交을 許容할 수 있다는 比率이 43.2퍼센트로 높아지고 특히 남학생의 60.1퍼센트가 이를 許容할 수 있다는 態度였다. 그러나 婚前 性關係가 바람직하다는 積極的인 態度는 男學生의 0.8퍼센트 뿐이고 女學生은 한명도 없다. 이와같은 結果에서 高校生들의 婚前性交에 대한 態度는 結婚을 約束한 사이에서 어느 程度 許容될 수 있다고 보지만 婚前性交은 決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共通的인 것임을 알 수 있다(4).

未婚勤勞女性의 경우 婚前性交은 57.6퍼센트가 理由如何를 不問하고 絶대로 許容할 수 없다고 했으며 16.9퍼센트가 結婚約束을 前提로 許容될 수 있다고 했다(10). 結婚을 約束한 사이에서의 許容率을 보아 高校生보다 未婚勤勞女性이 婚前 性交에 대한 思考가 더욱 頑固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婚前 性交에 대한 態度는 年齡에 따라서 差異가 있어 나이가 많을수록 保守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教育水準도 그들의 婚前 性交行爲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婚前 性交을 絶대로 容納할 수 없다는 態度가 高校까지는 學力增加에 比例的으로 增加하는 樣相을 나타내지만 大學校 以上에서는 그러한 態度가 매우 낮은 水準으로 減少한다. 即 國民學校 水準은 愛情만 있으면 상관 없다는 自由主義的 思考方式이 比較的 높게 나타나다가 高校까지는 점차로 絶대 許容되지 않는다는 保守的인 쪽으로 옮겨가며 大學以上이 되면 그 中間形態이고 結婚이 約束되었으면 괜찮다는 쪽으로 比率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婚前 純潔에 대한 態度는 51.3퍼센트만이 男女 共히 純潔해야 한다고 했고

16.1퍼센트가 男子는 純潔하지 않더라도 女子는 반드시 純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려 30.4퍼센트는 요즘세상에 純潔을 願하는 것은 낡은 思考方式이라고 생각하고 있다(10).

自慰行爲에 대한 中學生의 許容比率도 서로 다르다. 中學生의 경우 45.8퍼센트는 自慰行爲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지만 高校生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잘 알고 있다. 自慰行爲의 許容率은 中高生間에 현저한 差가 있다(中:15.3퍼센트, 高:66.3퍼센트). 또한 男女間 差異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男中:24.3퍼센트, 女中:5.9퍼센트, 男高:87퍼센트, 女高:42.9퍼센트). 이러한 自慰行爲는 性的인 力量과 感情을 經驗하고 發散하는 目的으로 行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性的 衝動을 統制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肯定的인 側面과 自慰行爲의 自責意識 및 健康上 害로울 것으로 믿고 있는 否定的인 側面이 있으므로 自慰行爲에 대한 態度는 곧 그 行爲의 肯定性 與否와 直接的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4).

다. 性에 관한 經驗

直接 또는 間接的 性關聯行爲인 異性交際, 自慰行爲, 키스, 性交, 避妊, 妊娠, 人工流産, 出産 等에 관한 靑少年의 經驗은 다음과 같다.

1) 異性交際

1970年の 全國 77個 中高校學生 4,116名을 對象으로 한 강준상의 研究(1)에서는 男 54.2퍼센트, 女 43.6퍼센트, 1975年 全國 버스 안내원 7,288名에 대한 이병태의 研究(7)는 45.9퍼센트, 同年 서울시내 女學生 603名에 대한 구본석의 研究(2)는 43퍼센트, 1978년 高校生 1,052名을 대상으로한 김선희의 研究(3)는 43퍼센트가 각각 異性交際를 經驗한 것으로 나타나 1970年代에는 大體로 靑少年의 異性交際 經驗者가 半數에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1981년 조정숙(6)의 高校生 1,210名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들의 異性交際 經驗率이 男子 67.7퍼센트, 女子 74퍼센트, 1984年の 未婚勤勞女性 918名에 대한 조사(10)에서는 82.8퍼센트가 異性交際를 經驗한 것으로 나타나 經驗率의 현저한 上昇을 알 수 있다. 또한 70年代初에는 女性보다 男性의 異性交際 經驗率이

높았던데 反해 1980年代에는 오히려 逆轉하여 女性쪽이 높다. 女性들의 活動이 消極的이고 權益이 위축되었던 保守的 社會文化 環境으로부터 近代化 過程으로 移行됨에 따라 女權伸張과 더불어 女性들의 積極的인 性向이 強해졌기 때문일 것이다(5).

이처럼 靑少年들의 異性交際는 점차 普遍化 되어가는 現實을 감안할 때 父母의 지나친 監視나 無條件 禁止시키려는 姿勢보다는 異性間에 健全한 對話를 自然스럽게 나눌 수 있는 機會를 주선했주고 指導해 주는 積極的 努力이 要求되고 있다.

2) 自慰行爲

12~21歲의 靑少年學生 3,269名을 對象으로 한 이수일의 연구에 따르면 男子 49.5퍼센트, 女子 21.5퍼센트가 自慰行爲를 經驗하였다(9). 또 하나의 研究 結果에는 1,263名의 靑少年 가운데 76.2퍼센트가 16세까지는 自慰行爲를 經驗하였고 最初의 自慰行爲經驗時 平均年齡은 男子 15歲, 女子 15.3歲였다(13)

3) 키 스

김한경 등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5퍼센트, 고교생의 17.3퍼센트가 키스나 포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男女間의 經驗率은 현저한 差異가 있어 中學生은 男子 7.6퍼센트, 女子 2.2퍼센트, 高校生은 男子 22.9퍼센트, 女子 11.6퍼센트이다. 그들의 키스나 포옹에 대한 許容的 態度를 갖는 比率이 中學生 35.4퍼센트와 高校生 56.5퍼센트에 비해 經驗率은 낮은 편이다(4).

未婚勤勞女性의 性行爲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에 의하면 異性과의 키스 경험율은 57퍼센트로서 中高生에 비해 현저히 높다. 16세~18세까지의 연령층, 즉 高校生の 연령층에 해당되는 근로여성들만의 경험율도 女學生의 11.6퍼센트 보다는 월등히 높다. 이들의 첫번째 키스 상대자와의 당시 관계 및 장소는 다음 表 4 및 表 5와 같다. 주로 서로 좋아하는 사이, 그냥 친구사이, 결혼상대자 등이 대부분이고 장소는 野外나 相對方의 居處 또는 旅館 等이다.

* “미혼여성의 성행태에 관한연구조사”는 홍문식·서문희, 미혼근로여성의 인구 및 성에 대한 지식태도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 와 동일한 과제로서 행위 부문은 본고에서 처음으로 분석제시되는 것임.

표4. 키스경험자의 첫 키스 상대자와의 그 당시 관계

관 계	키스경험자 수	비율(%)
서로 좋아하는 사이	263	50.3
그냥 남자친구	114	21.8
장차 결혼하게 될 상대자	78	14.9
직장 동료	15	2.9
직장 상사	15	2.9
친 척	9	1.7
전혀 모르는 사람	16	3.1
기 타	13	2.5
전 체	523	100.0

표5. 키스경험자의 첫 키스경험 장소

장 소	키스경험자 수	비율(%)
야 외	242	46.9
상대방 거처	120	23.3
여 관	78	15.1
본 인 거 처	47	9.1
기 타	29	5.6
전 체	516*	100.0

* 키스경험자 523명중 무응답자 7명은 제외됨

4) 性 交

우리나라 靑少年들의 性交 經驗에 관한 調査研究 資料는 高校生을 對象으로 한 學位論文이 大部分이다. 이들은 서로의 調査方法論上 差異로 나타난 結果數値만을 가지고 그 實相을 比較 評價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性交에 관한 資料는 韓國人口保健研究院에서 實施한 中學生에 관한 調査(4)와 未婚勤勞女性에 관한 調査資料(10)을 토대로 檢討코자 한다.

靑少年 學生들의 性行爲 經驗은 中學生 0.8퍼센트 高校生 7.3퍼센트이고 性

別로는 男中生 1.4퍼센트 男高生 11.7퍼센트인데 비해 女中生과 女高生은 各 各 0.2퍼센트와 2.8퍼센트로서 女學生보다 男學生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들 性交經驗者中 男學生의 88.8퍼센트가 15~19세에 첫 性交經驗을 했으나 女學生은 15세 미만에서 46.6퍼센트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問題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다.

性經驗場所는 野外가 31.7퍼센트인데 女學生의 경우는 相對方 및 自己집이 59.8퍼센트이다. 性交對象은 男學生의 72.3퍼센트가 異性親舊였으나 女學生의 경우는 異性親舊나 愛人은 39.8퍼센트에 不過했다.

한편 性經驗者의 家庭背景에서 男學生은 아버지의 學歷이 낮을수록, 女學生은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의 學歷이 國卒 以下인 경우에 性交 經驗率이 높았고 男女 共히 어머니가 안계신 경우에도 그 比率이 높았다(4).

이러한 靑少年 學生들의 性交經驗率은 泰國의 1982年 調查資料의 男學生 21.4퍼센트와 女學生 21.2퍼센트, 그리고 1985年度의 男學生 34.7퍼센트에 비하면 훨씬 낮다. 특히 女學生은 比較가 되지 않는다(14). 그러나 文化的 經濟的 背景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自由中國의 경우는 1983年 高校生 및 大學生에 대한 全國的 調查資料에서 男學生 5.6퍼센트와 女學生 1퍼센트만이 性交經驗을 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보다 현저히 낮은 水準이다(11). 男女間의 경험율은 泰國과 달리 女性쪽이 현저히 낮아 우리나라와 같은 類型이다.

우리나라의 未婚勤勞女性의 경우는 學生들보다 性交經驗率이 높다(10).

即 37.8퍼센트의 性交經驗이 나타났고 高等學生年齡層인 16~18세의 勤勞女性도 25.8퍼센트가 경험했다.

첫번째 性交相對者의 當時 關係는 主로 서로 좋아하는 사이(45.1퍼센트), 결혼 상대자(21.5퍼센트), 그냥 男子親舊(14.2퍼센트) 등이고 그외에 직장동료, 상사, 친척, 전혀 모르는 사람등이 약간씩이다. 또한 이들 相對者의 62.4퍼센트는 첫번째 키스를 경험한 相對者와 同一한 사람이었다.

한편 첫번째 性交를 하게된 狀況은 다음 表6에서와 같이 주로 서로좋아하는 사이이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거나,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의 強要와 自身の 好奇心으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거절할 餘裕도 없이 우발적이었다는 것이다.

性交 經驗者의 첫번째 經驗以後 다시 經驗한 實態와 再經驗相對者에 관한

現況은 다음表 7과 같다. 43.9퍼센트가 첫번째 성교상대자와 同一人이었고 첫 번째 相對者와 다른 경우는 23퍼센트, 첫 相對者 또는 다른사람과 再交의 經驗을 가진 사람은 9.6퍼센트이다. 그러나 23.5퍼센트는 첫 性交經驗 以後에 再交는 없었으며 性交經驗者의 46.7퍼센트는 現在에도 性交相對者가 있다고 했다.

只今까지의 實態에서 일반적으로 靑少年들의 性交經驗은 스스로 願해서라

표6. 성교경험자의 첫 성교관계를 갖게 된 상황

상 황	성경험자수	비율(%)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의 강경한 요구와 자신의 호기심으로	148	43.3
거절하거나 생각할 여유도 없이 우발적으로	93	27.2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으므로 자연스럽게	57	16.7
면식자로부터 강간당함	31	9.1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간당함	10	2.9
기 타	3	0.9
계	342*	100.0

* 무응답자 4명이 제외됨

표7. 성교 재경험 여부 및 재경험 상대자

재경험 여부 및 상대자	응답자수	비율(%)
<u>재경험함</u>	<u>263</u>	<u>76.5</u>
첫경험 상대자와	151	43.9
첫경험 상대자 아닌 사람과	79	23.0
첫경험 상대자 및 다른 사람과	33	9.6
<u>재경험 없음</u>	<u>81</u>	<u>23.5</u>
<u>전체</u>	<u>344*</u>	<u>100.0</u>

* 무응답자 2명이 제외됨

기 보다는 첫번째 키스를 경험한 相對者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未婚勤勞女性의 ⅔ 以上이 再交經驗을 했으며 그들의 半數에 가까운 女性은 現在도 性交相對者를 保有한채 關係를 維持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하지 않고 우발적인 性交라 할지라도 그 脫線은 한번으로 끝나지 못한채 反復된다는 事實에 留意해야 할 것이다.

5) 避 妊

性交를 經驗한 學生들의 避妊行態는 그 當時에 避妊方法을 서로 의논해본 學生이 男子 19.5퍼센트, 女子 14.5퍼센트였지만 實際로 避妊을 實踐했던 學生은 男子 39.1퍼센트, 女子 18.9퍼센트로 男學生들의 避妊實踐率이 갑절 높다. 使用方法是 主로 콘돔(51.9퍼센트)과 먹는 피임약(18.7퍼센트)이었다. 피임을 하지 않은 學生들의 理由는 大部分 時間的 餘裕가 없거나(29.2퍼센트) 피임약 제기구를 求할 수가 없거나(25.2퍼센트) 피임방법을 몰랐거나(24퍼센트)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15.5퍼센트) 등이었다. 特히 女性은 만약의 경우에 對備해서 피임방법에 대한 精確한 지식과 實踐의 必要性에 대한 充分한 認識이 있어야 할 것이다(4).

未婚勤勞女性의 경우 性交經驗者 346명의 避妊實踐 經驗率은 45.1퍼센트 (156명)이며 이들의 避妊方法別 使用現況은 다음 表 8과 같이 주로 먹는피임약, 콘돔, 月經周期法, 膣外射精 等이다.

월경주기법을 많이 利用하고 있다는 事實은 이들 중 상당수가 常習的인 性交關係를 維持하고 있다는 뜻이다.

避妊을 하지 않은 216명의 非實踐 理由는 性關係가 豫測없이 이루어졌다 (69.9퍼센트)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피임방법을 잘 알지 못했다(13.9퍼센트)거나 強姦(10.7퍼센트) 等の 順이다.

性交經驗者 346名 가운데 妊娠經驗者는 102名으로 29.5퍼센트이고 전체 조사대상 918名에 대한 比率은 11.1퍼센트이다. 李時伯 等の 1976年度 全國出産力調査資料 分析結果에서 이미 15~49세 既婚女性의 14.4퍼센트가 婚前妊娠을 경험했고 이러한 경험율은 젊은층일수록 높아져서 1974~1976年 사이에 결혼한 婦人은 ¼이 넘는 26퍼센트가 婚前에 妊娠을 했다는 事實로 보아 未婚

표8. 성경험자 중 피임 실천 경험자의 피임방법별 사용

. 경험율

피 임 방 법	사용율(%)
먹는피임약	29.5
콘 돔	37.2
살 정 제	13.5
월경주기법	51.3
질외사정법	26.9
자궁내장치	0.6
정 관 수 술	1.3
세 척 법	5.1

표9. 전체조사 대상자 및 성경험자별 인공임신 중절 경험여부 및 회수 비율

인공임신중절경험 여부 및 회수	조사대상자수	비율(%)
<u>전체조사대상자</u>		
인공임신중절유경험	97	10.6
1회	70	7.6
2회	17	1.9
3회	8	0.9
무응답	2	0.2
무경험	821	89.4
계	918	100.0
<u>성경험자</u>		
인공임신중절유경험	97	28.0
1회	70	20.2
2회	17	4.9
3회	8	2.3
무응답	2	0.6
무경험	249	72.0
계	346	100.0

勤勞女性의 11퍼센트 妊娠經驗率은 능히 있을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8).

妊娠事實을 認知하게된 경위는 半數以上(51.5퍼센트)이 病院 診察을 받고서
있고 나머지는 스스로 確認하게 되었다고 한다. 妊娠에 관한 理解가 크게 不足
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임신된 사실을 알고난 후에는 대부분이
누구와 상의를 했고 그 對象은 妊娠시킨 當事者(52.5퍼센트), 女子親舊(18.
8퍼센트), 家族(11.9퍼센트)이었고 8.9퍼센트는 아무와도 相議하지 않았다.

妊娠經驗女性들의 첫 妊娠 結果는 102名中 98名(96.1퍼센트)이 人工流産으
로, 2名(2퍼센트)이 自然流産으로 各各 終結되었고 한명은 현재 妊娠中이며
나머지 한명(1퍼센트)만이 正常出産으로 애기는 孤兒院에 보냈다.

人工妊娠中絶을 세번씩 經驗한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회수별로 分類
해 본 結果는 다음 表 9와 같고, 첫번째 中絶時의 妊娠個月數는 表 10과 같다.

人工妊娠中絶의 重複經驗이나 中絶時期가 너무 늦은 경우 등 中絶은 不可避
하나 健康上의 위해에 대한 豫防을 위해서도 性教育과 더불어 家族計劃教育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표 10. 인공임신중절자의 첫 임신중절시 임신기간

임신중절시 임신경과기간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수	비율(%)
3개월미만	39	40.6
3개월	30	31.3
4개월	10	10.4
5개월	1	1.0
6개월	2	2.1
7개월	6	6.3
잘모르겠다	8	8.3
전 체	96*	100.0

* 무응답자 6명이 제외됨

3. 性問題의 對策

經濟開發, 産業化, 都市化, 所得增大 等 일련의 社會 經濟的 變化는 意識의 急速한 西歐化를 促進하고 同時에 우리의 傳統的 性모랄을 汚損 내지 파괴시켜 既成世代와 젊은 世代間의 性的 價値體制上 갈등과 시련을 加重시키고 있다. 性에 관한한 비록 그것이 正當하고 當然한 것일지라도 이야기 자체가 수치롭고 숨기려고만 했던 것이 지난날의 우리 社會 規範이었다. 그러나 西歐式 性自由化 물결에 밀려 우리의 性文化는 보다 開放的인 方向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必然的으로 性享樂 風潮와 더불어 靑少年들의 性非行 및 脫線을 촉진하게 된다. 결국 靑少年의 婚前 性交, 姙娠, 人工流産, 나아가 出産에 의한 未婚母와 기아의 增加 等 심각한 社會問題를 加重시키기 마련이다.

靑少年의 精神的, 肉體的, 發育은 早熟하는데 反해 結婚年齡은 上昇하므로써 婚前 性問題에 노출될 機會는 더욱 增加되고 享樂風潮속의 各種 媒體 및 情報文化의 影響으로 無分別한 性的 刺戟은 끊임없이 性的 價値判斷을 混亂시켜 靑少年 性問題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 왔다. 우리는 이제 國家的으로나 社會的으로 未婚 靑少年들의 性實態에 관한 實相을 깊이 파헤치고 論議하며 그 對應策을 강구하는데 果敢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當面問題에 대한 對應策으로서 性教育, 社會的 環境改善 및 公共서비스 擴充 等を 다음과 같이 提示코저 한다.

가. 性教育 強化

性問題의 對策을 위해 性教育은 가장 基本的인 手段이 되고 있다. 只今까지의 各種 靑少年 性問題와 관련된 研究에서 性教育의 要求度와 重要性이 누누히 強調된바 있거니와 本稿에서는 이를 家庭, 學校, 社會 部門으로 나누어 略述코저 한다.

1) 家庭教育

愛情生活의 領域은 베일속에 감춰두는 것을 美德처럼 여기고 家族間의 性教育은 父母나 子息이나 서로가 부끄러운 일로 생각해온 傳統的 家庭文化는 오랫동안 家庭의 性教育 不在로 一貫해 왔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런 點에

서는 먼저 父母에 대한 性教育이 우선 要求된다. 父母들에 대한 性教育은 父母들의 性教育 參與意識을 위한 現實問題의 올바른 理解와 子女教育을 위한 父母로서의 性知識 축적으로 要約될 수 있다. 現實問題의 올바른 理解를 위해서는 子女를 가진 父母는 學校 先生님들과의 긴밀한 對話의 機會를 制度的으로 확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方法이 될 수 있다. 또한 婦女會나 班常會를 통한 靑少年 性教育 問題의 잇슈化도 考慮해 볼만 하다. 卽 靑少年 性問題 實態와 性非行 또는 犯罪 事例 等의 情報를 提供하고 父母의 子女에 대한 役割과 成人들의 靑少年에 대한 役割 等を 함께 論議할 機會로 班常會를 活用한다면 家庭에서의 性教育 一般化에 相當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父母로서의 子女에 대한 具體的인 性教育을 위해서는 各者가 性에 대한 올바른 知識을 축적하는데 스스로 努力해야하며 子女에 대한 관심을 學科目 工夫에만 치중시킬 것이 아니고 어릴적부터 身體의 情緒의 發達 過程에 따라 生活指導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장래의 性的 脫線豫防에 대처해야 한다. 特히 父母로서의 신뢰감을 유지케 하고 家庭에서 成人用 雜誌나 비디오 等 外設물을 비치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언젠가는 子女들이 몰래 볼 수 있는 點의 機會가 提供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2) 學校教育

成長過程에서 비로소 公式的인 性教育을 받을 수 있는 機會는 學校教育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學校 性教育은 極히 單편적이면서 體系化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앞에 記述한 바와 같이 中·高等 學生들의 性에 관한 一般的인 知識水準이 낮다는 事實에서도 그間의 學校教育이 滿足스럽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高校生들의 性知識 獲得 經路에 관한 研究들을 보면 大部分이 教師나 父母 兄弟보다는 交友나 大衆媒體를 통해서 性知識을 習得한다(5)는 事實에서 家庭에서와 마찬가지로 學校에서의 性教育의 必要性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教師의 2/3 以上이 學校 性教育의 不振理由로 學校制度의 問題, 性教育 媒體 및 施設 不足 等を 指摘하고 있으므로 이의 時急한 對策이 要求된다(4).

첫째 中高校에서의 性教育 프로그램을 開發하여 教科內容을 補強하되 서로 다른 科目에 散發的으로 提示된 性教育 情報을 體系의으로 一元化 하여 學科別로 段階的 學習이 一貫性 있게 될 수 있도록 制度的 改善이 要望된다.

둘째, 各級 學校의 教育施設, 이를테면 性教育 視聽覺教室의 設置와 各種 器資材의 確保 등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標準化된 教育資料의 普及으로 모든 學校에서 良質의 教育을 實施할 수 있도록 支援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物理的 與件을 갖추어도 教師들의 性教育 指導 能力이 不足하면 그 實效를 期待하기 어려우므로 特히 中·高等學校에서의 性教育 指導는 教科編成 方針과 一致하도록 專門教師를 指定해서 이들에 대한 專門的인 教育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社會教育

未婚勤勞女性의 55.5퍼센트가 事業場에서의 性教育을 받은 經驗이 있다고 했고 피임방법등 性關聯 知識의 情報源은 女性雜誌(84.1퍼센트), 女子親舊(66.5퍼센트), TV(54.1퍼센트), 學校(49.1퍼센트)등이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 職場에서의 教育은 겨우 39.7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10). 性과 관련된 知識은 大部分의 勤勞女性들에 의해 共通的으로 要求되고 있다. 그러나 主된 知識情報源은 大衆媒體라는 事實에서 性에 관한 社會教育의 貧困을 變명할길 없다. 따라서 靑少年에 대한 올바른 性指導를 위해 社會教育의 制度的 受容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다 具體的으로는 一定 規模以上の 靑少年을 雇傭하는 모든 事業體 및 公共機關에서는 一定時間의 定期的 性教育 프로그램 履行을 義務化시키고 中央 關聯機關에서는 專門的인 教育프로그램 및 教育資料의 開發普及과 일선 業體의 教育擔當者에 대한 訓練을 실시토록 制度化해야 한다. 아울러 매스컴을 통한 性教育 프로그램의 개발로 教育放送을 통한 健全한 性情報의 普及을 國家的인 次元에서 支援해야 한다.

나. 環境改善

靑少年들의 健全한 方向의 性衝動 解消를 위한 社會的 環境改善의 必要性은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다.

靑少年 性問題의 溫床이 될 수 있는 음화나 음란비디오 등의 不法의 生産流通을 強力하게 統制하여 우리 周邊이 淨化되어야 한다. 特히 그러한 外設물이나 淫亂쇼를 靑少年에게 提供하는 一部 業所, 이를테면 만화가게, 디스코텍 등의 不法의 營業行爲는 根絶시켜야 한다. 그리고 性交를 經驗한 靑少年 가운데 相當數가 어릴적의 強姦에 의한 경우임을 감안할 때 요즈음에도 빈발하고 있는 性暴行 犯罪가 철저히 團束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近親相姦의 防止를 위해 近親 靑少年 男女間의 은밀한 機會가 될 素地를 마련치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週刊 또는 月刊 雜誌 등이 性情報 提供源으로서 큰 役割을 하고 있고 그 內容의 大部分은 興味爲主의 煽情的이고 外극된 內容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媒體를 통한 情報內容을 보다 健全하고 教育的인 것으로 改善해 나가는 努力이 行政的으로나 社會的으로 모아져야 한다. 그리고 라디오, TV 등, 放送當局도 靑少年 性教育에 관심을 더하여 그들의 올바른 指導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 公共서비스 擴充

未婚勤勞女性의 大多數가 異性問題 및 性問題 解決을 위한 相談機關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으며 그들의 75.6퍼센트는 相談機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고 23.1퍼센트는 없는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相談員이나 相談所는 직장내부보다는 직장밖의 것을 選好한다는 反應이므로 保健醫療機關이나 病醫院, 民間團體의 一線組織 등에 相談所를 設置 運營하는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專門的 電話相談 組織도 擴大하여 性問題에 관한 한 누구나 궁금증 또는 어려운 문제들을 언제라도 손쉽게 相談 가능토록 서비스망을 구축함이 바람직하다. 具體的으로 大韓家族計劃協會에서 그동안 示範的으로 개발 운영해온 性相談電話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政府次元에서 積極 支援하는 方案도 考慮해 볼만하다.

그 외에 부득이한 경우 避妊을 할 수 있도록 指導하고 性脫線과 無知에 의해 不願妊娠이 된 경우를 위한 合法的인 人工妊娠中絶의 주선도 可能하도록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出産의 경우 未婚母 指導管理 및 入養 알선 等 公共 對策이 더욱 根源的으로 福祉次元까지 擴大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1. 강준산, “중·고교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 가족계획, 대한가족계획협회, 1971 여름호.
2. 구본석, 이성교제에 관한 조사연구-서울 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5.
3. 김선희, 이성문제의 유발요인에 관한 조사연구-충청북도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1978.
4. 김한경, 남정자, 한혜경, 한국청소년들의 생식보건에 관한 연구(I),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5. 김한경, 남정자, 한국 청소년 성문제에 관한 문헌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6. 조정숙,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7. 이병태, 자동차 여성근로자연구-안내원실태조사와 분석-, 전국자동차노동조합, 1975.
8. 이시백, 박병태, 최순, “혼전임신경험부인의 출산력수준고찰”, 가족계획논집 제5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78.
9. 이수일, 한국청소년의 성의식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78.
10. 홍문식, 서문희, 미혼 근로 여성의 인구 및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

11. Cernada, George P. et al, "Implication for Adolescent Sex Education in Taiwan",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ume 17, Number 4, Population Council, 1986.
12. Malm, Marguerite and Olis G. Tamison, Adolescence,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2, pp. 3-4, 12.
13. Moon, Ok-Ryun, An Analysis on Adolescent Fertility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보건학논집 제31호, 1981, pp. 59~66.
14. Porapakkham, Yawarat, Level and Patterns of Adolescent Sexuality, The Case of Thailand, Paper Prepared for the Workshop on Adolescent Sexuality and Fertility in Asia, August 7~14, 1985, Taichung, Taiwan.
15. WHO, "Young Peoples Health-A Challenge for Society", Report of WHO Study Group on Young People and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5.

V.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6次에 걸친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成功的인 推進으로 産業構造의 革新을 통한 年平均 8퍼센트라는 高度經濟成長을 이룩하였다. 이와같은 社會經濟的 發展과 더불어 國民保健醫療水準의 向上과 營養狀態의 改善으로 靑少年의 肉體의인 健康狀態는 크게 伸長되었다. 즉 1965~1985年 期間中 滿15歲 男子의 신장은 151.5cm에서 164.0cm로, 그리고 女子는 149.3cm에서 155.4cm로 증가되었고 동시에 體重은 男子가 44.6Kg에서 53.2Kg으로, 그리고 女子는 49.3Kg으로 각각 증가되었다. 또한 1人當 칼로리 섭취량은 1965年의 2,189Kcal에서 1985年에는 2,687Kcal로 증가되어 日本과 같은 수준으로 向上되었다. 이와같은 肉體的 變化와 더불어 女子의 初經時期는 1960年의 14.6歲에서 1983年에는 12.3歲로 短縮되었다.

그러나 1960年代 以後에 우리나라의 社會가 産業化, 都市化, 情報化社會로 급격히 發展됨에 따라 西歐文物의 流入에 의한 傳統의인 價値와 慣習의 崩괴, 道德의 紊亂, 非行靑少年의 增加등으로 靑少年의 精神健康과 非行問題는 하나의 社會問題로 대두되었고 이와같은 現象은 1980年代부터 더욱 加速化되었다.

各種調查結果에 의하면 1960年代에 靑少年의 精神健康을 야기한 原因中에서 家庭問題가 全體의 46%를 점유했으나 教育制度의 改革으로 경쟁이 심한 大學進學을 위한 入試準備, 一流病등으로 1980年代에는 學校問題로 인한 精神疾患이 44%로 그 主流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物質의 풍요와 매스컴을 통한 大衆化現象, 그리고 西歐의 開放的인 性倫理規範이 그대로 이식됨에 따라서 靑少年의 藥物濫用과 性非行問題는 이들의 健康뿐 아니라 社會問題로서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社會文化的 與件은 西歐化물결과 더불어 급격히 變化될 뿐 아니라 新·舊世代의 價値體系內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때문에 靑少年의 精神的 및 肉體的 健康을 저해하는 社會病理現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對策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금번에 世界保健機構(WHO)의 支援으로 1989. 4.24~25日 期間中 개최된 “靑少年의 保健問題와 對策”에 관한 세미나에서는 靑少年의 外形的인 肉體的 健康問題보다는 社會·文化的 規範과 生活樣式의 變化에 따른 靑少年의 精神健康, 藥物濫用과 非行, 그리고 이들의 性問題 實態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대한 對策을 강구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靑少年問題와 관련된 各界 專門家 및 政策實務者, 50여명이 參席한 가운데 개최된 同 세미나에서는 上記 3個主題에 관한 發表 및 討議가 있었고 세미나 第2日에는 3個分科의 討議結果에 대한 全體討論이 전개되었다. 同 세미나에서 發表, 討議된 主要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靑少年의 精神健康問題와 對策

精神的으로 건강한 靑少年은 幼兒期의 발달과제를 완수하고 靑少年期の 發達課題를 成功的으로 遂行 중인 靑少年을 뜻하는데, 靑少年期の 발달과제로는 ① 身體變化에의 適應과 性的 에너지의 統制 및 승화, ② 父母로부터의 心理的 解放과 獨立, ③ 自我正體性的의 確立을 든다. 따라서 精神健康問題란 이와같은 發達課題 이행에 실패함으로 여러가지 行爲뿐만 아니라 感情의으로도 갈등과 고통을 받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19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研究結果에 따르면 이들 중 31.05%가 精神障礙를 갖으며(신경증 1.05%, 정신분열증 1.05%, 잠재성 정신병 4.21%, 적응장애 6.31%, 인격장애 16.31%, 우울장애 2.1%) 87%가 한가지 이상의 적응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韓國 靑少年들 사이에서 음주, 흡연, 藥物濫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음주14~43%, 흡연 30~40%, 약물남용 5%) 靑少年 精神科의 환자 통계를 보면 이들의 약 40%가 不安, 우울, 틱, 및 정신신체 장애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주로 學業成績과 一流大學에의 入學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不安 때문이다. 韓國 靑少年과 그 父母의 주된 관심사가 大學에 들어가

느나 마느냐이다.

靑少年 發達을 방해하는 몇몇 社會的 要因은 다음과 같다.

① 人間教育의 不在:高等學校 教育 機能은 오로지 大入이다. 學生, 教師 및 父母가 오직 學業成績에 관심을 갖으며 반에서의 성적, 등수가 곧 大學과 연결된다. 고등학생의 최종목표는 一流大 入試에 合格하는 것이다. 人間 開發, 心理 및 對人關係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아무도 이들의 人性發達, 감정적 혼란, 自我正體性 確立을 위한 努力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② 價値 오리엔테이션의 혼란과 갈등:서구문명의 流入, 빠른 經濟成長과 産業化, 民主化 물질등이 모두 전통적 유교·불교 관련 가치에서 近代 물질주의적 성취위주의 個人主義的 가치로의 빠른 變化에 기여해 왔다. 한편 向上된 生活水準과 生存問題에서 解放된 상태에서 成長한 젊은 사람들과 靑少年들은 삶의 意味와 삶의 目的을 추구하며 그들의 父母와 심각한 세대격차를 느낀다. 또한 부모는 부모대로 子女養育 및 10代 子女管理에서 혼란과 不一致를 느낀다. 부모는 子女에게 獨立的이며 成功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존적이며 고분고분한 子女로 다룸으로써 10代를 二重結果 속에 몰아 넣고 있다.

③ 家族構造의 變化:産業化, 都市化의 영향으로 우리의 가족구조가 전통적인 大規模 擴大家族에서 소규모 核家族으로 변모함에 따라 여러가지 새로운 變化가 나타나게 된다. 과보호, 지나친 통제, 지나친 기대, 밀접한 相互作用 등인데 이런 變化는 靑少年의 內的 혼란과 獨立을 위한 투쟁등의 결과를 낳는다. 부모와 자녀간의 강한 相互作用으로 10代 靑少年은 그들 父母의 結婚, 또는 中年期의 문제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近代 한국가정의 문제는 10代의 成長과 그들 行爲에 대한 統制이다.

④ 무절제한 대중매체와 地域社會 統制 및 責任意識의 缺如:라디오, TV나 기타 大衆媒體는 아마도 靑少年 行爲發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들 매스컴의 프로는 대부분 상업주의적이며 成人爲主이다. 매우 에로틱한 시청각 물과 자극적인 상업적 오락물への 노출을 통제할 길이 없다.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地域社會나 社會 전체가 여러가지 社會的 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이나

效果的 조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③ 青少年 精神健康 專門家の 不足:韓國이 青少年 精神健康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이 문제를 다룰 專門家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青少年이나 父母에게 相談 및 教育을 해 줄수 있는 훈련받은 專門人力이 많지 않다. 學校 相談教師가 있기는 하나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으며 心理學者나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다. 몇몇 青少年 相談機關이 운영되긴 하지만 대개가 자원자이며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정도가 심한 정신건강 문제 청소년을 위해 치료와 教育機能을 해 줄 장기투숙치료소도 전무하다.

精神健康問題와 관련하여 이를 예방하고 效果的으로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事項이 건의되었다.

1) 青少年이 發達課題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우며 그들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家族機能을 강화하고 父母를 대상으로 한 教育을 강화한다.

2) 高等學校 教育이 知的 분야는 물론 신체 및 심리적으로도 균형된 발달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教育制度를 개선하여 青少年이 건강한 自我正體性, 個人的 삶의 의미와 목표, 社會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 추구하여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매스 미디어 내용 및 프로를 적절히 效果的으로 統制하며, 지역사회및 국가 次元에서 사회 병적인 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2. 青少年의 藥物濫用 및 非行과 對策

青少年의 藥物濫用과 非行問題는 최근에 이르러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學生 보다는 非行青少年層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最近의 調查結果를 통해 나타난 藥物濫用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吸煙:學生集團은 35%, 근로청소년은 32%가 吸煙을 경험한데 비해 非行 青少年은 94.4%가 吸煙 經驗이 있다고 하였다.

② 飲酒:學生의 50.3%, 근로청소년의 71.6%, 그리고 非行青少年의 93.3%가

알콜 음주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③ 疲勞回復劑:日本과 韓國에서 유행하는바, 각 집단에서 모두 90% 이상이 경험한바가 있다고 하였다.

④ 鎮痛劑:각각 70% 이상의 경험을 나타냈으며 근로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 비해 약간 높았다.

⑤ 覺醒劑:3 靑少年集團에서 모두 15% 정도로 나타났다.

⑥ 安定劑:學生 및 勤勞靑少年은 5%정도이나 非行靑少年은 28%의 사용경험을 나타냈다.

⑦ 催眠劑:학생 0.9%, 근로청소년 2.6%, 非行靑少年 7.1%가 사용했다고 한다.

⑧ 마리화나:학생 0.7%, 근로청소년 0.8%, 非行靑少年 13%였다.

⑨ 본드:學生 및 근로청소년은 각각 3.7%, 5% 정도이나 非行靑少年은 40.7%의 사용율을 보였다.

以上과 같이 韓國靑少年의 藥物濫用은 서구사회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본드나 각성제 등에서 남용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약물남용 年齡이 낮으며 非行行爲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非行靑少年으로 發展하게 된다. 藥物濫用은 한가지 사회요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父母, 친구, 教師 등 모두가 관련되며 또한 入試制度과 같은 社會制度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일찍부터 청소년 약물남용 방지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靑少年 藥物濫用과 관련된 建議는 다음과 같다.

① 靑少年 藥物濫用 治療 및 回復에 대한 주기적 評價制度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진단을 분류하여 치유법을 찾고 동시에 문제를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다.

② 藥物濫用に 대한 처벌법규는 처벌보다는 예방쪽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집행기관도 예방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세관, 경찰 및 관련기관이 협조하여 情報를 교환하며 전문화된 기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靑少年, 부모 및 관련인을 대상으로 藥物에 대한 教育을 強化해야 한다. 産業場과 기관에서의 靑少年 프로그램에서 教育을 강화하며 매스 미디어도

공공교육 및 약물남용 감시에 협조해야 한다.

④ 각도에 藥物濫用 靑少年을 위한 再活센타가 설립되어야 한다. 여기에 전문가를 훈련시켜 고용함으로써 팀에 의한 藥物濫用이 검사, 치료될수 있어야 한다.

3. 靑少年의 性問題와 對策

우리나라 社會·文化 및 경제적 빠른 變化는 여러가지 면에서 價値 變化를 초래하였다. 傳統社會가 계속 近代化되면서 靑少年의 性問題는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우리사회의 性的 規範은 아직 엄한 편이다. 靑少年은 두가지 相反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즉 變化하는 환경이 性開放 기회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전체가 이런 변화에 선택적으로 거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와같은 우리나라 社會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10代 靑少年의 性 水準과 문제를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解決方案을 摸索하고자 한다.

먼저 問題點으로는 ① 性關係 經驗 年齡의 저하, ② 避妊 未使用, ③ 원하지 않는 妊娠, ④ 人工妊娠中絶의 증가, ⑤ 원치 않는 子女와 未婚母의 增加를 들 수 있다.

한국 靑少年의 성풍조는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다. 즉 서구사회의 생활방식이나 性的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行爲가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혀 고려치 않는다.

대체로 한국 靑少年은 生殖 및 避妊에 대한 性知識이 미약하다. 1988年 연구 결과에 의하면 中·高等學生의 경우도 男學生보다 女學生의 性知識이 약한 편이다.

未婚 勤勞女性 사이에서도 단지 42.5%가 콘돔을 안다고 하였으며, 殺定劑 및 月經週期法은 각각 25.5%, 23.1%가 안다고 하였다. 그러나 1984年 調査에 의하면 루프는 14.9%, 不妊術은 13.9퍼센트의 인지율을 보였다.

中學生 중에서 性交 經驗이 있다는 比率은 0.8%이며 高等學生 중에서는 7.3%였다. 未婚勤勞女性은 37.8%의 性經驗率을 보였는데 이들의 46.7%는

첫번째 性交 後 다른 사람과 또 관계를 한것으로 調査되었다.

避妊法 使用은 男學生 및 女學生 性 경험자의 각각 39.1%, 18.9%인데 대개 가 콘돔과 먹는피임약이다. 미혼근로여성은 성경험자의 45.1%가 먹는피임약, 콘돔, 주기법과 같은 避妊法을 使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妊娠은 性을 경험한 미혼근로여성의 경우 29.5%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調査對象 미혼근로여성의 11.1%에 해당된다. 妊娠結果를 보면 102名の 妊娠 경험자 중 98名(96.1%)이 人工妊娠中絶로 임신을 종결시켰고 2名(2%)이 自然流産되었으며 1名(1%)만이 出産하여 시설로 보냈고 또 다른 1名은 調査 당시 임신 중이었다.

증가하는 靑少年 性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政府가 보다 획기적이고 강력한 政策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로 가장 效果的이며 손쉬운 靑少年 性問題 解決 方案은 教育으로서 學校 및 社會教育機關에서 정규과정에 性 및 人口 教育을 강화하고 家庭에서도 教育機能을 담당하여 靑少年의 건전한 性倫理觀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 各種 教育機關에서의 性教育이 活性化 되기 위해서는 性教育에 관한 教科 過程의 開發, 性教育擔當教師에 대한 教育의 實施 및 資料開發등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로, 매스 미디어와 事業場에서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性教育을 실시하는 것이 靑少年의 건전한 性行爲의 발달에 效果的일 것이다.

끝으로 현재 기혼부부에 한정되고 있는 家族保健事業의 對象에 未婚男女가 포함되도록 선행되어야 한다.

4. 政策的 提言

以上에서 言及된 靑少年의 精神健康問題, 藥物濫用과 非行, 그리고 性行爲에 관한 問題는 相互 密接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때문에 靑少年問題에 대처하기 위한 綜合的인 政策代案의 수립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특히 靑少年에 대한 이제까지의 對策은 事後團速에 치중되어 왔고 政府 部處別로 散發的으로 推進

되어 왔기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얻기에는 매우 미흡한 實情이다. 따라서 靑少年問題에 대처하기 위한 方案은 보다 根本的이고 豫防的인 次元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靑少年問題에 대한 長短期計劃의 樹立과 관련된 計劃 및 評價活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情報收集 및 環境體系가 確立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創設된 靑少年研究院의 調查評價活動은 靑少年問題와 관련된 各部處의 政策需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機能이 多元化되어야 한다.

둘째로, 靑少年과 관련된 業務는 그 內容과 性格에 따라서 體育部, 保健社會部, 勞動部, 文教部, 內務部, 文化公報部등 많은 部處가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各部處의 事業活動에 대한 協助와 統制調整機能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制度的인 장치가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保健醫療行政을 전담하는 保健社會部の 組織에 靑少年保健을 專擔하는 부서의 新設이 요구된다.

셋째로, 精神疾患 및 各種 非行靑少年의 再活을 위한 長期治療(最少限 6個月以上)와 教育을 전담할 수 있는 대규모 施設의 擴充과 이에 종사할 專門人의 養成을 위한 長短期發展計劃의 수립과 추진이 조속히 착수되어야 한다. 특히 靑少年問題를 담당하고 있는 精神科醫師에 대한 專門的인 訓練프로그램도 開發되어야 한다.

넷째로, 政府에서 推進中인 經濟社會開發5個年計劃內에 포함된 部門別事業計劃에 靑少年에 관한 내용을 주요 정책과제로 크게 부각시키고 이를 社會開發次元에서 강력히 推進토록 한다.

다섯째로, 靑少年의 非行과 健康을 저해하는 各種 社會制度(各種 法律 및 入試制度등)는 과감하게 改善되어야 한다.

일곱째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하에서 靑少年들이 올바른 價値觀과 生活方式를 갖을수 있도록 기존의 教科內容이 修正補完되어야 한다.

여덟째로, 靑少年問題는 근본적으로 家庭(父母)와 學校(先生)에서 해결되어야 할 課題이므로 師親會(例:美國의 PTA)와 같은 기존 組織體의 機能을 強化한다.

아홉째로, 全國의 保健所組織網에서 근무중인 約 4,500名의 保健要員에 대한 職務教育을 통하여 靑少年에 대한 相談과 指導가 가능하도록 기존 保健要員의 業務機能을 擴大한다.

끝으로 靑少年과 관련된 事業活動을 전개하고 있는 各種 民間團體의 役割과 機能이 發展的으로 擴大될 수 있도록 政府次元에서의 支援을 強化한다.

結論적으로 우리나라 靑少年은 身體의 急激한 발달에 비해서 정서 및 심리적 발달은 미숙한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身體的 成熟과 情緒的 未熟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기도 하고 여기에 高三病이나 一流病을 낳게 하는 기존 教育制度가 靑少年의 정신적 압박을 더욱 加重시켜 각종 非行을 초래하는 原因이 되고 있다.

이런 청소년에게 우리사회는 뚜렷한 價値觀이나 指向해야 할바를 정립·제시하지 못한채 急激히 變化하고 있기 때문에 成長期의 靑少年은 外部 영향력에 취약해져서 開放的 性風潮와 같은 西歐的 文化와 行爲樣式을 무분별하게 模倣하고 나가서 犯罪나 藥物濫用과 같은 非行을 저지르고 있다.

오늘의 靑少年은 내일 우리 사회의 主人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成長해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未來가 달려있다. 따라서 靑少年 問題는 父母, 教師, 그리고 專門家가 一體가 되어 노력하고 政府次元에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綜合的인 對策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Health Issues of Korean Youth and Their Counter-Measures

《Contents》

- I. Justification and Objectives of the Study
- II. Mental Health Issues of Korean Youth and
Their Counter-Measures
- III. Trends and Strategies on the Drug Abuse and Delinquency
of Korean Youth
- IV. Sexual Problems of Korean Youth and Their Counter-Measures
- V. Summary and Policy Recommendations

(Appendices)

- 1. Seminar Schedule
- 2. List of Seminar Participants

I . Justification and Objectives of the Study

Korea has achieved an annual economic growth rate of eight percent since 1962, due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ix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rograms, through which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country has undergone a major change.

Concomitant with the rapid socio-economic growth, the nation saw during the period a rapid improvement in public health and in the adolescents' physical health. For instance, during the 1965~85 period, the height of a 15-year old male increased from 151.5cm to 164.0cm, and that of a female of the same age from 149.3cm to 155.4cm, and the weight for a male from 44.6Kg to 53.2Kg, and that for a female from 43.7Kg to 49.4Kg. The per capita daily caloric intake increased from 2,189Kl in 1965 to 2,687Kl in 1985, a level similar to that in Japan. The age of menarche also decreased from 14.6 year in 1960 to 12.3 years in 1983.

The rapid chang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since the 1960's due to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the information overflow has brought with it the collapse of the traditional value system, the moral conflict, and increase in the number of deviant adolescence, which is an indicator of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The juvenile delinquency began to emerg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1980's and according to a series of survey results, in the 1960's, 46% of the juvenile delinquencies were due to issues arising from broken families, while in the 1980's, 44% of the deviant adolescent behavior we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hyper-tensions arising from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 material abundance, and the unlimited exposure of adolescents to mass media and to the western sexual mores all helped the adolescents to indulge in deviant behavior, thus creating social problems. The head-on clash between the traditional value standard of Korean society with that of the western society and the generation gap between the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re likely to aggravate the adolescent problems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highly appropriate that the seminar held during the April 24~25 period focused on the problems of the adolescents health and counter-measures.

The seminar, sponsor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placed emphasis on the mental health issues of adolescents in relation to not only on their physical growth, but also in relation to the changing socio-cultural environments that affect the adolescents' mental health, including the socio-cultural factors that are involved in sexual mores of the adolescents and the drug addition.

The seminar also aimed at studying measures to cope with a variety of the adolescents' deviant behavior, with 50 specialists and government officials engaged in the juvenile delinquency problems participating. The seminar was conducted in three separate session relating to the adolescents' deviant behavior, and on the second day of the seminar, overall discussions of these issues dealt with in the three sessions were made(See the attached seminar schedule).

The following are the summary of the contents presented and discussed in the individual three sessions and the plenary session.

II. Mental Health Issues of Korean Youth and Their Counter-measures

By the mentally healthy adolescent is usually meant an adolescent who has achieved the late developmental stage of childhood.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is adolescence are (1) the emergence of physical changes, including the sexual maturity and (2)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3) the establishment of ego-identity. Mental health problems (psychopathology) are conceptualized as failure to achieve these developmental tasks which result in emotional conflicts that usually result in various behavioral problems.

A review of psychiatric literature in Korea reveals that 31.5% of a sample of 190 high school students suffer from various forms of mental disorders (neurosis 1.05%, schizophrenia 1.05%, latent psychosis 4.21%, adjustment disorder 6.31%, personality disorder 16.31%, depression 2.1%) and 87% of all these students reported more than one kind of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Smoking and drug abuse are reported to be increasing among Korean adolescents (smoking 30~40%, drinking 14~43%, drug abuse 5%). Analyses of psychiatric clinic population indicate that 40% of adolescents seeking psychiatric help are experiencing anxiety, depression, tic and psychosomatic disorders, mainly due to stress and anxiety arising from poor academic performance in school.

Some of the social factors interfering with adolescent development are as follows.

- a) Lack of attention to personality development of adolescents: Currently, high school education functions as prep. school for college. The ultimate goal of high school students is to pass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nd not enough attention seems to be paid to personality development of adolescents, their emotional turmoil and their search for ego-identity.

- b) Confusions and conflicts in value orientation: Rapid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and recent political disturbances, all have contributed to drastic changes in adolescents' value orientation, from the traditional confucian orientation to modern materialistic, achievement-oriented rationalism. Meanwhile, adolescents suffer from generation gap from their parents who are confused and inconsistent in their attitude toward child rearing and adolescents behavior. The parents often use moral double standard by saying that adolescents should be independent and yet expect them to be still dependent upon them and compliant children.
- C) Changes in family structure: Changes in family structure from a large extended family to a small nuclear family inevitably have brought about various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s: such as to choose a control and overprotection and overexpectation, and these changes often produce intense inner turmoil and struggle for independence among adolescents. In addition to the intense conflicts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adolescents also suffer from their marital or other problems.
- d) Exposure to mass media and lack of community control : Radio, TV and other mass media have strong influence on adolescent behavior and yet most of the mass media programs are adult oriented. There are no effective controls over highly erotic audiovisual materials and provocative commercial entertainment.
- e) Lack of trained mental health specialists for adolescents : We suffer from lack of specialists to deal with adolescent problems. There are not many trained professionals and specialists who can provide counseling services

to the adolescents and to their parents. School counselors are available but they are often not adequately trained and not many psychologists or mental health specialists are available in schools. The adolescent counseling centers that are currently in operation are equipped mostly with volunteers and but with few trained professionals. There is no long-term residential center which can provide treatment and education to seriously impaired adolescents with mental health problem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to effectively deal with mental health problems : (1) Strengthening education for parents on adolescent needs and to provide appropriate help to adolescents in their efforts to help solve adolescent problems. (2) Promoting a balanced, integrated development in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 well as in the intellectual domain for adolescents. (3) Changing educational system in such a way as to make it possible for the adolescents to pursue and achieve healthy ego-identity, and find meanings and goals of personal life and their role in the community and society. (4) Controlling of mass media to reduce or eliminate social pathogenic factors at the level of community resulting from the uncontrolled exposure of adolescents to mass media.

III. Trends and Strategies on the Drug Abuse and Delinquency of Korean Youth

Since the 1970's drug abuse among young people has increasingly become a social problem in Korea. In the 1980's drug abuse, especially glue sniffing, became the cause of many unfortunate incidents.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seriousness of this problem,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initiated a nation-wide research programme, to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and to raise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The data used in this paper, were collected in February 1988 with the collaboration of the staff and volunteers in the local Chap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ota sampling.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three separate respondents: 2,700 to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605 to working youths, and 916 to delinquent youths. A total of 4,221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present patterns of drug abuse, as tabulated from the results of the survey.

- a) Smoking : The percentage of youth who smoke was 35% in the student group, 32% in the working youths group, and 94.4% in the delinquent youths group.
- b) Alcohol : 50.3% of students, 71.6% of working youths, and 93.3% of delinquent youths experienced drinking alcohol beverages.
- c) Tonic (non-alcoholic, caffeinated beverages) : The percentage of those who used tonic at least once was over 90% in all three groups.
- d) Sedative : About 70% of each group used sedative and the proportion of working youths who used sedative was higher than that in other groups.
- e) Stimulants : Those who used stimulants accounted for around 15% in each group.
- f) Tranquilizer : Somewhat less than 5% of students and working youths, and 2% of delinquent youths, used tranquilizers.
- g) Hypnotics : The users of hypnotic amounted to 0.4% among students, 2.6% among working youths and 7.1% among delinquent youths.
- h) Marihuana : Those who have used marihuana indicated 0.7% of students, 0.8% of working youths, and 13% of delinquent youths.

i) Glue-sniffing : The percentage of glue-sniffing was 3.7%, 5% among students group and youths group respectively, but the proportion was unusually high, at 40.7% among delinquent youths group.

Drug abuse among Korean youths are low relative to that of western youths. Moreover, early drug abuse is evident, and it appears to have a close connection with adolescent deviant behaviour. Drug abuse cannot be attributed to any one factor since drug abuse depends on parents, peers, teachers and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also is influenced by so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 (1) There should be a periodic evaluation of drug abuse among young people as well as of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busers. (2) The method of punishing on drug abusers should be focused on the prevention oriented rather than punishment oriented measures. Law enforcement agencies must strengthen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s. It is essential that customs, officials, police and local authorities should share their information, act in concert with one another, and maintain better means to control drug abusers. (3) Drug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instituted for youths, their parents and the persons related to the drug use. (4)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rug addicts should be built at the province level. Drug addicts should be examined and treated by government-trained professionals regularly.

IV. Sexual Problems of Korean Youth and Their Counter Measures

Rapid socio-cultural and economic changes in the country has brought

with it changes in the society's value system. For a traditional society that is increasingly being exposed to modernization but where sex norms are still very restrictive, the adolescent sexual mores takes on added significance. Adolescents are caught between two opposing forces, the changing environment that allows for freer and liberal mores and the traditional society that cannot keep pac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therefore demands resistance to changes.

This paper focuses on problems of adolescent sexuality in this country and considers the countermeasures for the existing problems.

Amongst the problems are : (a) increasingly younger age of th adolescents who start sexual intercourse (b) non-use of contraception, (c) unwanted pregnancies, (d) increase in the number of induced abortion and (e) increase in the number of unwanted children and unmarried mothers.

The Korean adolescent's sexual behavior seems to follow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other words, many western modes of life and sexual values seem to have been copied in Korea and yet Korean adolescents lack in their knowledge of sex related matters such as reproductive physiology and contraception.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emale students are reported to have less knowledge on sex than male students according to a 1988 survey by KIPH.

Even among the unmarried female factory workers, only 42.5 percent replied they know of the condom, and 25.1 percent and 23.1 percent said they had knowledge of spermicide and menstrual regulation respectively. However, 14.9 percent and 13.9 percent reported that they had a knowledge of the loop and female sterilization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1984 study by KIPH.

Amo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0.8 percent said they had experience in sexual intercourse, while 7.3 percent of the high school students reported

having had sexual intercourse. The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rate among the unmarried female factory workers is 37.8 percent. Among those female factory workers with sexual experience, 46.7 percent had more than one sex partners. Only 39.1 percent of male students and 18.9 percent of female students among those with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have used contraceptives, mostly condoms and oral pills. 45.1 percent of female factory workers with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used contraceptives such as pills, condoms and rhythm methods.

The pregnancy experience rate among the female factory workers who had experience in sexual intercourse is 29.5 percent, which is 11.1 percent among the total respondents. Out of the 102 pregnant female workers, 98 workers (96.1 percent) terminated their pregnancy by induced abortion and 2 workers (2 percent) in natural abortion, while 1 worker (1 percent) was in pregnancy and another 1 worker had normal birth that was subsequently sent to orphanage.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 of adolescent sexuality, a drastic and strong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by the government. The most effective countermeasure to the adolescent sexual problems appears to be education. The sex and population education in the school is very much in need. In addition, sex education program through mass media and at the job site should be promoted for a healthy development of adolescents' sexual behavior. Also, the existing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which has focused on the married couples, should be extended to the unmarried people in its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gram.

V. Summary and Policy Recommendations

As has been discussed, adolescents' mental health, their drug addition, and sexual behavior are so closely inter-related with each other that a comprehensive measures that can cope with all these three issues should be studied.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past counter-measures against the adolescents' issues have been of a stop-gap nature, and they were rarely of a preventive nature and often times. Several separate government agencies were involved in the adolescent problems but with little coordination between the agencies involved.

For a better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against the adolescent problems,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commended.

First, a long-term measures should be studied, and better management system which includes planning, evaluation, and supervision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efficient information gathering could be made possible. For instance, the function of the recently established Korea Youth Institute (KYI) could be strengthened to include the research and evaluation of the adolescent issues and to provide various government agencies with information regarding adolescent problems.

Second, a system should be worked out where by a better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involved in adolescent issues could be established. Currently, issues on adolescence are being dealt with by the Ministries of Sports, Health and Social Affairs, Labor, Education, Home Affairs, Culture and Information, etc. 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 separate section on adolescent affairs c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ministry's health and medic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hird, a long-term planning should be made, in which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 expansion of the facilities for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of the adolescents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could be made possible. The training of the medical doctors responsible for psychiatric treatment of adolescents is in great need.

Fourth, a greater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adolescent issues in the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of the government.

Fifth, efforts should be made to get rid of the many social institutions that are considered to be factors creating adolescent problems, like the current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ixth, major revisions to the existing school textbooks should be made so that adolescent could better absorb the diversified value systems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at differ from those of the traditional society.

Seventh, the parent-teachers association (PTA) should be strengthened in its function for the use of in studying adolescent problems, since most adolescent problem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adolescents' parents and their teachers.

Eighth, a fuller utilization of the existing health worker network should be made. There are about 4,500 health workers in health centers throughout country, and if these health workers could be trained in dealing with the deviant adolescents, a greater efficiency in controlling adolescents' deviant behavior could be obtained.

Lastly, efforts should be made to bring about a better condition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working in the field of adolescent problems, and greater support should be given to them.

To conclude,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adolescents are mentally in an immature stage despite their outward physical maturity, and to most of these adolescents, our society cannot provide a definite moral standard, against which the adolescents evaluate their own behavior. Therefore, ado-

lescents problems should be studied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parents, teachers, and specialists, with an act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private agencies involved in this field.

Appendix 1. Seminar Schedule on Health Issues of Korean Youth and Their Counter--Measures

24 APRIL 1989(Mon.)

10:00-10:30	Registration	KIPH Auditorium, Seoul
10:30-11:00	Opening Ceremony	
	Opening Address	Dr. Dal Hyun Chi President of KIPH
	Congratulatory Address	Dr. Doo Ho Lee Vice-Minister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Congratulatory Address	Dr. J.F. Bertaux WHO Representative to Korea
11:00-11:20	Coffee Break	
11:20-12:30	Mental Health Issues of Korean Youth and Their Counter-Measures	
	Chairman	Dr. Sung Woo Lee Director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Lecturer	Dr. K. Michael Hong Prrofessor, Medical College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	Dr. You Kwang Kim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12:30--14:00	Lunch	

14:00-15:10	Trends and Strategies on the Drug Abuse and Delinquency of Korean Youth	
	Chairman	Dr. Dal Hyun Chi President of KIPH
	Lecturer	Prof. Soung Yee Kim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en's University
	Discussant	Mr. Sang Ku Han Section Chief Division of Youth Guidance Bureau of Youth Ministry of Sports
15:10-16:20	Sexual Problems of Korean Youth and their Counter-Measures	
	Chairman	Dr. Chung Tae Kim Vice President of KIPH
	Lecturer	Mr. Moon Sik Hong, Director Family Planning Research Div., KIPH
	Discussant	Ms. Han Kyung Kim Chang National Health Institute National Seoul University

25 April 1989(Tue.)

10:30-12:30	Overall Discussions and Recommendations	
	Chairman	Mr, Nam Hoon Cho Director Planning & Coordination Div., KIPH
12:30-13:30	Lunch	
13:30-15:30	Plenary Session(Continued)	

Appendix 2. List of Seminar Participants

1. No. of Formal Participants	36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9)	
Ministry of Labors (1)	
Ministry of Sports (1)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 (1)	
Seoul Education Commission (1)	
Seoul National University (3)	
Ewha Women's University (1)	
Younsei University (1)	
Seoul Women's University (1)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1)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 (1)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1)	
Korea Medical Association (2)	
Huo-Sang Daily (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11)	
2. No. of Observers from the pertinent program.....	14
agencies	
Total	50

韓國青少年的保健問題와 對策

1989年 5月 25日 印刷

1989年 5月 30日 發行

發行人 池 達 顯

發行處 韓 國 人 口 保 健 研 究 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 42-14

電 話 : 355-8003~7 (交換)

印刷處 文 善 社 印 刷 社
